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6, 2016 Vol. 548

CA, 1인용 화장실 '성중립 표기'

공공건물 1인용 화장실…남·여 구분 표지판 사라져



ⓒ크리스천포스트

2017년 3월 1일 발효, 공용 화장실은 제외

캘리포니아주 공공건물에 있는 1인용 화장실에 남여 구분 표지판이 사라지는 대신 '성중립'을 뜻하는 알림판이 붙게 됐다.

9월 29일 주류 언론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인용 공공화장실의 성 중립화를 의무화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 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주 브라운 주지사는 전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주에 공무 출장과 기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워싱턴D.C와 같은 도시에서 이미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안되거나 통과됐다며 캘리포니아대학 계열을 포함해 미국 내 150개 대학도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제 편히 쉬소서"

동양선교교회…故임동선 목사 장례예배 엄수


故임동선 목사
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故 임동선 원로목사의 장례예배가 10월 1일 토요일, 그가 40년 이상 섬겼던 동양선교교회에서 엄수됐다.

동양선교교회 담임인 박형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고 허경삼 목사가 "바울의 최후 고별사(딤후4:6~8)"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故 임 목사를 추모하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이귀임 권사, 윤임상 교수가 조가를 불렀다.

이정근 목사와 임경진 목사가 추모사를 전했고 장남인 임승광 집사가 조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축도는 이기홍 목사가 했다.

하관예배는 할리웃 포레스트론에서 있었다. 임병택 목사의 인도로 송정명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행 20:24)"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관련 추모사 2면에 계속]

"이 땅 고쳐 주소서…다민족연합기도대회 설명회"

10월 23일(주일) 오후5시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23일 개최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참여 독려 설명회가 9월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대회 주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영적,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미국을 염려하며 회개와 부흥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열린다. 특별히 올해 집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오는 23일(주일) 오후 5시~8시 디즈니랜드 앞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도회는 한인 교계에 의해 대규모 집회로 준비 중이다.

이 대회를 위해 9월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다민족 지도자들을 초청한가운데 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11 11 11 로즈볼 다민족기도대회와 11 11 14 얼바인 야외음악당 다민족기도대회를 이끌었던 David Andrade 목사와 A Line in the Sand 팀들, 지난해 11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기도대회에서 다민족 대표로 기도를 인도했던 다민족 지도자들 25명이 한인준비위원회 실행위원 25명과 자리를 같이 했다.

이 설명회는 준비위원장 강순영 JAMA대표의 사회와 공동준비위원장 민승기 OC교협 회장의 기도로 시작되어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와 다민족 준비 대표를 맡은 David Andrade 목사가 환영인사를 겸해 미국의 당면 위기와 금년 11월 8일 실시될 대통령과 여러 지도자들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또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므로 인종을 초월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온 나라가 다시 부흥을 통해 하나님과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도회에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 장소: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
*주소: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714-615-9191

[JAMA제공]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

올림픽장로교회 이전감사예배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가 2일(주일) 오후 4시 새성전에서 이전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드려진 예배는 정장수 담임목사의 인도로 문상명 목사(생명샘교회 담임) 기도, 성경봉독(인도자), 찬양(연합찬양대), 남성수 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 설교, 헌금기도(정장수 목사), 박형주 목사(미주영안교회 담임) 축사 순으로 드려졌다. 김호원 집사와 문혜원 집사는 특별찬양으로 각각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이헌 장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이 땅 위해 함께 기도하자"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창립31주년 감사예배

"힘써,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남가주 한인들의 영적 충전을 위해 설립된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이 창립 31주년을 맞이해 2일 기도원 본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LA에서 80마일이나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 돌산 속에 숨어있는 이 기도원은 허허벌판에서 시작해 현재 150에이커 부지에 3개의 성전과 10동의 숙소를 갖추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이며 이 기도원 원장인 진유철 목사는 "우리 교회가 이 땅과 미국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원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각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예비지원서[PRE-APPLICATION]은 11월 1일)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창립 31주년 감사예배가 2일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은혜롭게 드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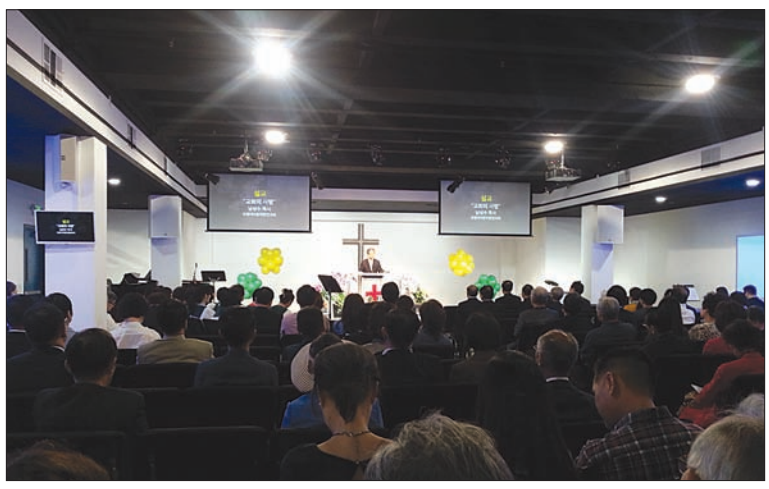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창립 31주년 감사예배 드려

[1면으로부터 계속]이날 진 목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1:12~14)"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초대교회처럼 힘써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인가?"라고 물은 후 "우리가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 개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미국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은 기도원에 있어서 큰 변화의 한 해였다. 기도원이 설립되던 LA 한인사회 초기만 해도 수많은 한인이 한 달에 두 번씩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버스를 타고 찾아와 금식하며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한인사회와 교회들이 정착기에 접어들자 기도의 불길이 사그라졌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됐다. 이 가운데 오히려 라티노 등 타민족들이 기도원을 찾기 시작하며 국제금식기도원이라는 이름은 더욱 어울리게 됐지만, 한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실 수는 없던 터였다.

그러던 중 30주년을 맞이해 고헬렌 부원장이 은퇴하고 이태준 부원장이 취임하면서 기도원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도원으로 변화의 걸음을 내디뎠다. 그 첫 번째가 지난 7월에 3일간 열렸던 '작은 교회를 위한 초교파 청소년 연합수련회'였다. 나성순복음교회가 100% 후원한 가운데 기도원에서 미자립교회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전액 무료로 열렸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21개 교회에서 학생 84명이 참석했는데 교사와 자원봉사자만 80명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 가운데 진행됐다. 31주년 예배에서 축사를 전한 이상호 목사(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LA지방회장)도 이 연합수련회를 언급하며 "나성순복음교회와 기도원이 이런 소중한 사역을 계속해 달라" 요청했다.

김준형 기자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가 2일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올림픽장로교회 이전 감사예배 드려

[1면으로부터 계속]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북미주개혁교회(CRC) 한미노회에서는 노회를 위해 특별한 사랑과 후원 봉사를 아끼지 않은 올림픽장로교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전 입당을 축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성수 목사는 '교회의 사명'(마 18:12~14) 주제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사명에는 3가지 원리가 있다. 그것은 생명의 원리, 기쁨의 원리, 전진의 원리이다"며 "영혼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치러야 한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이다.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감격으로 '내가 찾았노라!'며 감격해 하는 주님의 마음, 그처럼 한 영혼 구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기쁨의 원리'이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후퇴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전진의 원리'이다"라고 선포했다. 이어 "25년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또 다른 25년을 복음의 승리를 위해 쓰임받는 올림픽장로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축복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전 감사예배는 유영호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전 감사예배가 끝난 후에는 친교실에 준비된 식사를 함께 하며 올림픽장로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나누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올림픽장로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1992년 6월 몬트로스 성전에서 첫 개척예배를 드린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소: 3020 Wilshire Bl.
LA, CA 90010

이영인 기자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써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949)329-8222
Email: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행 복 세 미 나

10월 22일(토) 오전 9시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행복 세미나〉가 개최된다.

*장소 : 동양선교교회 *문의: 213-235-4848

*주소: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기둥이셨습니다"

故임동선 목사를 추모하며



이 정 근 목사
성결교회

□우리 시대의 엘리야

임동선 어른 목사님께서는 불기둥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신 불기둥이셨습니다. 혹독한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불기둥이셨습니다(출13:21). 청년시절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정치입국의 불기둥이셨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에게 처형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동선아, 안심하거라.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던 예수님의 불(눅12:49)이 임동선 청년 가슴에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김일성의 손을 빌어 죽음의 삼팔선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시면서 성령의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행2:1~3).

□경무대여, 회개하라

성경말씀이 어른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면 항상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었습니다. 죄악을 말끔히 태우는 불, 사탄을 쫓아내는 불, 육신의 질병을 감쪽같이 고쳐내는 불, 인격을 개조하고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불, 가정을 튼튼하게 고치는 불,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불, 영혼을 구원해내는 불, 민족과 국가를 바로 세우는 불, 지구마을 전체를 거듭나게 하는 불, 중풍으로 오래 누워계셨던 황재순 사모님을 따뜻하게 보살피셨던 사랑의 불.....그 당시 서슬이 시퍼렇던 이승만 대통령 면전에서 경무대부터 회개해야 한다고 하신 경고는 실로 불기둥 설교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 때에 그 말씀을 하늘의 무서운 경고로 알았더라면 4.19혁명의 비극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히 말한다 해도 어른 목사님은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위대한 말씀의 사람이십니다.

임동선 어른 목사님은 교회목회의 불기둥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목회 대명 곧 내 어린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내 양을 먹이라(요21:15~17)는 목회대명을 십자가 지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여주성결교회를 시작으로 부임하시는 교회마다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공군 군목으로서는 장병들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는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동양선교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이 교회는 단숨에 해외코리안 디아스포라 최대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시절 동양선교교회는 실로 선교의 불기둥, 교육의 불기둥, 봉사의 불기둥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센터였습니다. 어른께서 바로 '목회자의 최고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셨던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양 떼들은 목숨 걸고 자신들을 보살피는 목회자를 따르기 마련이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 어른의 목회 초년병 시절 바위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요10:11)는 예수님의 목회 대헌장을 목숨 걸고 실천하신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면 목회자건 평신도건 누구나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임동선 어른 목사님은 선교의 불기둥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바울을 모범삼으신 선교사이셨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주 55개 국가 1,200여 교회와 집회에서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니느웨성 집회처럼 회개와 중생,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점진적 순교자이셨다

어른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며 전도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흠모하셨습니다. 기도의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불기둥이신 목사님은 온 지구촌을 선교목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뼈를 묻은 리빙스턴 선교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구를 이끌고 남미 4개국 선교로 이 땅 위에서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어른 목사님의 평생 기도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키셨습니다"(딤후4:7). 비록 사도 바울처럼 단숨에 목이 잘려지는 순교자의 길은 못 걸으셨지만 이번 목숨 건 선교여행은 어른 목사님을 '점진적 순교자'로 존경하기에 넉넉합니다.

임동선 어른 목사님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온 지구 마을을 뛰어다니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불기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존경스러운 어른 목사님을 추모하는 가장 바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임동선 어른 목사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불기둥, 복음을 전파하는 불기둥, 나라를 바로 세우는 불기둥,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는 불기둥, 교회와 가정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는 불기둥, 십자가를 지는 원수사랑의 불기둥이 되겠다는 뜨거운 결단을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임동선 어른 목사님께서 육신 안에 계실 때의 사역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사역은 계속 불기둥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활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은 그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그 사역은 계속하십니다."

SUPER AUTO DENT BODY INC & AUTOTECH
Super Autotech
수퍼 자동차 덴트 바디&오토텍
www.superautodent.com
자동차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보험, 토잉, 렌트카까지 원스탑 서비스! (24시간 대기)
Mercedes-Benz BMW LEXUS Audi PORSCHE HYUNDAI KIA Ford HONDA ACURA
어떤 정비라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오직 기술력과 참신한 서비스로만 승부하겠습니다!
유럽차 전문! 어려운 정비OK!
SUPER AUTO DENT BODY SHOP
T.323.730.1530 영업시간 : 월~ 금 (AM 8:00~PM 5:00)
233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워싱턴 블루버드 + 그래머시 플레이스)
Washington Blvd
Arlington Ave
S Gramercy
S Western Ave
10 Freeway



제35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 한인교회들 찬양으로 하나돼"

제35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가 9월 25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합창제에는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늘푸른동산교회 호산나 성가대, 감사한인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새생명비전교회, 선한목자교회, 은혜한인교회 은혜성가대 등 7개 단체에서 참가해 연합을 다졌다.

또 2016년 남가주 학생 찬양대회에서 부문별 1등을 차지했던 배주은 양이 특송을 불렀고 같은 대회에서 전체 대상을 차지했던 제니 박 양과 고등부 2등을 차지했던 루비 박 양이 듀엣으로 헌금송을 불렀다. 모든 참가 팀들의 연주가 끝난 후에는 다 함께 최운용 목사(감사한인교회)의 지휘로 '할렐루야'를 합창했다.

이 협회의 서병호 이사장은 "매년 이때가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각 교회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원재 회장은 "하나님께서 찬미의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찬양 사역자들을 축복하사 더욱 온전하고 신령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기도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주최 제36회 교계연합성가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OC평연 주최 교계연합 성가제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 이하 OC기평연) 주최 제36회 교계연합성가제가 1일 오후 은혜한인교회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대회에는 임마누엘 성가대(감사한인교회)를 비롯해 그랜드 페스티벌 여성합창단, 브니엘 성가대(베델한인교회), 브니엘 여성합창단(나성영락교회), KYVC Morningstar Youth Choir, 글로리아 찬양대(남가주사랑의교회), CTS여성합창단, 임마누엘 성가대(은혜한인교회) 등이 참석해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였다.

오위영 테너는 특별찬양으로 참여했다.

또한 미국의 회복과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 순서에서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다함께 '할렐루야'를 합창한 후 노정도 목사(OC기평연 자문위원)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모금된 헌금은 오는 10월 개최될 '다민족연합 구국기도회'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LA 다운타운 보이드 길과 로스앤젤레스 길이 만나는 곳에서 4개 교회가 연합해 홈리스들을 섬겼다.

4개 교회연합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

거리의교회(담임 전예인 목사), 산울교회(담임 김흥철 목사), 사랑제일교회(담임 정충일 목사), 한마음선교교회(담임 김경식 목사)가 함께 10월 1일 아침 LA 다운타운 홈리스들에게 찬송 연주와 맛있는 식사를 선물했다. 거리의교회는 매일 홈리스들에게 섬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3개의 교회도 동참한 것이다.

*참여문의: 213-718-66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가 2일 창립 3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드렸다.

"갈보리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감사예배"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응철 목사)가 창립 35주년을 맞아 2일 감사예배와 임직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배는 그간 갈보리장로교회가 5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첫 임직자를 배출하는 감격적인 시간이 됐다.

조응철 담임목사는 "지난 5년간의 성전 건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며 "이제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오전 11시예배와 오후 임직예배에서 설교한 장재효 목사(서울성은교회 담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삼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선택하신 자기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한다"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세상의 육신의 조건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신령한 하늘소망의 기준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권면했다.

장 목사는 또 "집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일을 손에 잡고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이다"며 "귀한 임직을 통해 더욱 교회가 구령성과를 위해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임직한 김태흥 안수집사는 "27년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오늘에서야 순종하고 결단했다"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말했다.

임직감사예배에서 권면을 전한 임명진 목사(좋은 우리교회 담임)는 "직분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늘 붙들고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했다.

축사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담임)가 섬겼다.

모든 순서는 장재효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로 은혜롭게 마쳤다.

*문의: 702-579-7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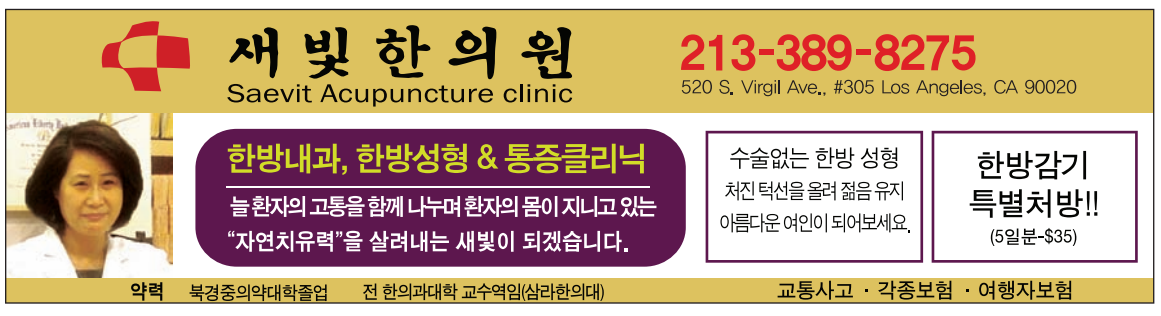
*주소: 6554 W.D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이인규 기자



크스천헤럴드 창간 39주년 및 CHTV 개국 1주년 기념 찬양제가 2일 나성한인교회 본당에서 개최됐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을 비롯해 모두 9개팀이 참가하였으며 500여 명의 출연진과 축하객들이 함께 부르는 헨델의 '할렐루야'를 끝으로 찬양제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LA 선교 집회

"30여년을 장애인 영혼 구령사역에 헌신한 고창수 목사의 생생한 간증"



강사 고창수 목사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사무총장



김천환 선교목사
사랑의 띠 선교회



에스더 진복일 선교사



김민경 선교사와 카이로스 Bodyworship









포천 중앙 기도원 엘림 여름 산상성회 단체 사진

일시 :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지난 30여년을 장애인 선교에 헌신하신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님의
LA 선교 집회가 2016 년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에 LA 사랑의 띠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날 **소프라노 진복일의 미주 찬양 선교사 임명식**도 함께 거행하며
김민경 선교사와 카이로스 율동 선교팀도 함께 참여 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 15분 부터 준비 됩니다
주차는 건물 뒷편에 있으며 7시 이후에는 건물 좌우 도로에 하셔도 됩니다

집회 문의 : (213)736-6625 LA 지부장 김천환 선교목사

장소 : 사랑의띠 선교교회 – 한국 엘림 장애인 선교회 LA 지부
1300 W Olympic Blvd, #200, Los Angeles, CA 90015

www.elimusa.org



워십리더 코리아 주최로 글로벌 워십 컨퍼런스가 열렸다.

"예배가 이끄는 삶"

LA찬양 사역자들…글로벌 워십 컨퍼런스 개최

LA의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한 글로벌 워십 컨퍼런스가 '예배가 이끄는 삶'이란 주제로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1일 열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려 12시간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샐리 모겐샐러(Worship Evangelism의 저자)와 그렉 쉬어(The Art of Worship의 저자)가 주강사로 참여했다. 또 꿈이있는자유의 정종원 목사, 소리엘의 지명현 목사, 워십리더 코리아의 가진수 목사, 예배사역자이자 교육자인 김섭리 목사, 작곡가이자 찬양사역자인 이천 목사와 심형진 전도사 등 현장의 찬양 사역자뿐 아니라 풀러신학교의 이상훈 교수, 차세대 문화 사역자인 조나단 리 목사, 유니온교회의 김신일 목사, 팜스프링스한인교회의 최승목 목사도 주제강의 혹은 선택강의를 맡았다.

로스앤젤스한인침례교회의 박성근 목사, 코너스톤교회의 이종용 목사는 각각 개회와 폐회예배 설교를 전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워십리더 코리아의 대표 가진수 목사는 "영성이 고갈되는 이 시대에 예배의 중요성이 더하고 있다. 예배를 통해 교회가 치유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십리더 코리아는 2012년 예배를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두 달에 한 번씩 워십리더 매거진을 발간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에 글로벌 워십 컨퍼런스를 3일간 연 바 있으며 이번에 LA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미주 한인 교계에서는 처음이었다. 이들은 향후 매년 10월에 LA에서 이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뉴저지교협 신임회장…김종국 목사 선출"



김종국 목사
뉴저지교협 신임회장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이하 뉴저지교협) 제30회 정기총회가 9월 26일 오후 6시 뉴저지순복음교회에서 개최, 신임회장에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가 선출됐다. 직전회장은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였다.

또 새 임원진은 △부회장 윤명호 목사(뉴저지동산교회)·김진수 장로(허드슨장로교회) △총무 우종현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서기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 △부서기 박순탁 목사(섬기는교회) △회계 강영안 장로(초대교회) △감사 민경수 목사(세상의빛교회)·윤석래 장로(뉴저지연합장로교회) 등으로 확정됐다.

김종국 목사는 회장 선출 인사말을 통해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을 섬기겠다"면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가 되는데, 30회를 맞은 뉴저지교협도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뉴저지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섬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종국 목사는 1994년 10월부터 1999년 3월까지 클로스터개혁장로교회를 맡았고 1999년 6월 새언약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담임을 맡고 있다.

또한 교단 경력으로는 미국개혁교단(RCA) 교회활력위원회(Church Revitalization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RCA 대뉴욕지역 한인교협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총회의 인준을 받았던 총무, 서기, 회계는 새롭게 선출된 회장단에서 선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으며 뉴저지교협 회관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기총회에서는 총 수입으로 98,915.38불, 총 지출로 96,706.56불이 보고됐다.

[뉴욕기독일보]

"남가주새생명교회 대부흥성회…오직 성령으로"



남가주새생명교회 담임 박형준 목사(왼쪽)와 초청 강사 김익현 목사(오른쪽).

남가주새생명교회(담임 박형준 목사)에서는 9월 26일~30일까지 "오직 성령으로" 주제의 대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이 부흥성회에는 김익현 목사(마하나임침례교회 담임)가 강사로 초청됐다.

한편 남가주새생명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번 셋째 주 금요일 밤 11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지역 연합 철야기도회 '미스바철야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기도회의 목적은 개인과 우리 가정, 교회와 사회,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21일에는 주님의빛교회(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에서 열린다.

남가주새생명교회 주소는 236 W. Ceritos, Anaheim CA 92805다.

권 쉘비 기자

조동혁 박사 칼럼 3

조동혁 내과/신장내과



행복한 하루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타지방에 살던 필자가 LA로 이사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고급 승용차들이 거리에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BMW나 벤즈는 중산층의 전유물인 양 너무도 흔하게 지나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필자인지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주 고가인 차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고가의 가방과 옷으로 한껏 치장하고 외출하는 여성들도 자주 눈에 들어왔다.

필자가 LA로 이사를 한 후, 한달도 채 안 된 때의 일이다.

한번은 필요한 식료품이 있어서 한국 마켓으로 장을 보러 갔다. 필자는 필요한 식료품들을 다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필자의 바로 앞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 여성은 루이비통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이제 차례가 되어 그 여성이 계산을 하던 중이었다.

그 여성이 계산하던 품목 중에는 작은 김치병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격이 4불 99전인 듯 했다.

정황상으로 캐쉬어가 실수로 정가보다 2불을 더 찍은듯 했다.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케쉬어였다.

이 여성은 전후 사정을 설명할 틈도 주지않고 다짜고짜로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캐쉬어가 손님이 가격을 잘못 아셨을 수도 있으니 가격표를 확인한다고 했지만 그 여성은 막무가네로 더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기의 귀한 시간을 허비한다고 따지기 시작했다. 연거푸 5번 이상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데도 자신의 시간을 허비했는데 죄송하면 다냐면서 메니저 나오라고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메니저까지 나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도 막무가네였다. 메니저가 뒤에 손님들이 많으니 옆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자고 하니, 뒤에 서 있는 필자와 가족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 시간은 금이고 자신의 시간은 하찮은 배설물이냐면서 또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루이비통에 BMW를 타고 다니는 이 여성이 설마 루이비통 매장에서도 2불 때문에 이렇게 욕설을 해댈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루이비통을 메고 고가의 자동차를 타며,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느끼는 것일까?

아무리 겉모습을 중요시 하는 LA라고 해도 이것은 너무 한 처사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필자가 LA에 온지 2년이 넘는 동안 이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다.

오늘 필자는 아내와 두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냉면과 김치만두를 먹으며 갑자기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 이 글을 쓰게됐다.

오늘 하루, 필자는 새벽에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던 환자 두 명을 좋아지게 했고, 8시부터는 수십명의 사람에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고, 세 명의 환자에게는 초기 암 증세를 발견해 치료하게 해주었다. 또 필자의 치료에 고마워하는 환자분이 진료 중에 갑자기 일어나 해주시는 특별한 지압도 받아 보는 기분좋은 하루였다.

물론 필자가 하는 이런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는 가족과 함께 김치만두를 먹으며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하루였다.

공허한 삶에 루이비통과 고가의 차로 치장을 한들 진정한 행복이 찾아 올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비싼 차를 탄다고 자신의 공허한 삶이 가득 차는 것도 아니다. 남들을 의식하며 치장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행복해 하는 사람은 벌써 자신 안에 있던 행복한 것들을 인식했을 뿐이고, 그 것들을 감사해 하는 것 뿐이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lordgracechurch.org

주/은/혜/교/회

창 립 예 배

주은혜교회 창립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은혜교회 교우 일동



일시 : 2016년 10월 1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 4469 Chevy Chase Drive
La Canada Flintridge, CA 91101
문의 : (626)404-4493

나를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35-5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사람이 왜 태어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창세 이후로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쇼하는 무대라고들 합니다. 자기 인생의 각본을 따라서 제멋대로 쇼하는 것이 세상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쇼를 잘 했을 때는 박수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쇼를 잘 못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원망과 심지어 행패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은 원맨쇼로 살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人)을 한문으로 보면 상형문자로 혼자서 살수 없고 서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26이하에서 보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령이 되었다고(창2:7) 밝히셨고 창1:36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천하만물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을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관리가 의탁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세기1:26)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의 다스림으로 위임되어졌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얻어서 먹고 살자고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히려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던 소유권을 다시 얻기 위하여 종살이를 하게 된 오늘의 현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 하나님의 계획(計畫)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되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어느날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권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좇습니다.

요한복음 1:38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이까"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와 보라"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함께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 밤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확실하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튿날 날이 새기 바쁘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내주시라 했던 그분을 만났다"하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내 형님이고 시몬이라고 소개하기도 전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니 이름을 이제 바꾸어 게바라 하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영어로 Peter라 해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하십니다. 이 이름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그리스도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을 동생 안드레가 전도하여 와서 소개도 시켜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시몬을 알아보셨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즉 너의 정통한 신앙고백을 반석으로 내 교회를 이 땅위에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 당하여 죽게 될 것을 미리 일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남은 평생은 이미 예수님의 각본에 따라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그대로 살다가 순교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설계는 내가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설계하고 추진도 하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거기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도,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성공을 기대할 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생기게 하심으로 생겼고 태어나게 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하나님이 짜시는 것입니다. 그걸 일찍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가서 맞추고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성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2. 나보다 나를 더 잘아시는 주님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하십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 갈릴리 동북 해안에 있는 작은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즉 예언이 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동네의 예수더라고 소개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출신이 아니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듣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야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전도 밑천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가 없어서 가장 마지막 전도 방법은 "한번 와 보라"였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고 말씀하시니 나다나엘이 당황해서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데리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성(兩性)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니까 인성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성이고 나다나엘이 6개월 전에 날이 더워서 무화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빨리 독립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울며 기도한 사실을 알고 하신 말씀은 영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3.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依託)

로마제국주의 압제 하에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노동력은 착취당하는 생활 속에서 참으로 살맛이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며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고통에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에 몰려가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죄 값을 회개하라고 강하게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서둘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절망은 소망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죽음은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너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내가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내가 책임지고 보살펴 주리라"(수1:7~9)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장재효 목사 초청 영성집회

주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집회 일정

10월 2일(일) 라스베가스장로교회(조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임직예배 오후 5:00
10월 5일(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 수요 경건회 오전 11:00
10월 7일(금)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금요집회 오후 7:00
10월 8일(토)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토요집회 오후 7:00
10월 9일(일) SB 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10월 14,15,16 (금),(토),(일) 하늘영광교회 (김성광 목사) 금요집회 7:30, 토요집회 7:00 주일예배 11:00
10월 17~20일(월~목)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 부흥사경회 오후 7:30분
10월 24~26일(월~수) 라스베가스 연합부흥회
10월 30일(일) 좋은소식교회(이호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11:00, 오후1:30

남가주지역 목회자 초청세미나

일시 : 10월 17일(월) 오전 10:30
장소 : 제이제이 그랜드호텔
후원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e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문의전화 : (213)739-0403, (213)718-1512

"유년주일학교 사역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입니다
"유년주일학교"사역을 사랑과 헌신으로 담당할
Part Time 사역자를모십니다.

유년주일학교

1. 자격요건
A. 신학교재학중 또는 졸업하신 분
B. 영어설교가 가능하신 분

2. 제출서류
A. 이력서 (사진포함)
B. 본인 신앙고백서

3. 접수안내
A. 보낼곳 : 이메일 12dchung@comcast.net
B. 마감일 : 2016년 10월 30일
C. 문의사항 : 정석표 장로 T(443)243~0061

갈보리장로교회
6800 Loch Raven Blvd., Towson, MD 21286
(담임목사 조 병래)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LA 한인타운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교회시설 Sublease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교회건물 서브리스 합니다.

위치 : 6가와 샷토 코너(새언약학교)
시설 : 본당 380+석, 파킹 46대, 교실 및 식당
연락처 : T(213)487-5437
담당자 : Mr. Joseph 구
이메일 : info@e-nca.org

● 김인수 교수의 한국 교회사

교회의 사회개혁 활동(II)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 여성 해방을 위해 혁혁한 공로를 세운 YWCA도 YMCA와 같은 목적으로 1857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에 YWCA가 시작된 것은 3·1독립운동 이후 여자전문학교와 중학교 안에서 비롯되었다. 1922년 6월 전국여자하령회(夏令會)가 개최되었을 때 조선여자기독청년연합회 기성회가 발족되었다.

이듬해 8월에 서른네 지방 YWCA 대표들이 모여 서울 협성여자성경학교에서 연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했으며 이어 1924년에 세계 YWCA에 가입하여 정식 회원이 됐다.

한국의 YWCA 운동은 YMCA와는 달리 순수히 한국 여성들에 의해 창립되었고 주도되었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 YMCA보다는 늦게 창설된 원인도 있었지만 3·1독립운동 이후 한국에 일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 경향으로 외국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체 힘으로 민중계몽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의가 내포되어 있었다.

YWCA 창설 목적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됨을 인정케 하고, 구세주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함에 두고 있었다. 여성운동, 청년운동, 기독교운동, 회원운동 등을 특징으로 꼽는다.

또한 YWCA가 주안점을 두고 한 사업의 첫째는 종교적, 교육적 출판물 간행이었고, 둘째는 음주의 해독에 관한 교육 및 금주운동, 셋째는 공창반대운동 등이었다.

수양회, 하령회, 금주·금연운동, 생활개선운동, 공창폐지운동, 물산장려운동, 여성지위향상운동 등과 지방에서 올라온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목욕탕 설립운동,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교육 등 한국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YWCA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헌한 업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의 청년활동은 YM., YW. 이외에도 엡윗(The Epworth League) 청년회와 면려청년회(勉勵靑年會)가 있다. 엡윗청년회는 감리교회의 청년단체로 1889년 미국 오하이오(Ohio)주 클리블랜드(Cleveland) 감리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운동이다. 엡윗(The Epworth League)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고향이다. 이 운동이 조직된 취지는 복음선교와 사회봉사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였는데, 곧 미국 내 모든 감리교회로 퍼져 나갔다.

한국에서 엡윗청년회가 조직된 계기는 1897년 5월 미 북감리회 제13회 한국선교연회를 주재하기 위해 내한한 조이스(I.W.Joyce) 감독의 승인이었다. 주한 선교사 존스(G.H.Jones)를 총무로 임명하고 노블(W.A.Noble)을 위시하여 5인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엡윗청년회의 최초 조직은 동년 5월 정동감리교회에서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 25명과 여자 11명으로 창립되었다. 그 뒤를 이어 평양 서문안, 아영골 등 전국의 감리교회 안에서 조직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이 선포되면서 서울의 상동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엡윗청년회가 애국운동에 나서자 친일 경향의 해리스(M.C.Harris) 감독은 교회단체의 정치 참여란 이유로 1906년 해산을 명하였다.

그 후 여러 교회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엡윗청년회는 1920년 재결성되었다. 동년에 북감리교 산하 교회들의 연합체가 형성되었고, 1925년에는 남감리교회 산하 교회연합회가 발족되었다. 1929년에는 이 기관의 잡지인 「종교교육회보」(宗教教育會報)가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한동안 유형기(柳瀅基) 목사가 발간하던 「신생」(新生)을 인수하여 계속 발간하였다.

1930년 남·북감리교회가 통합하여 한 교회가 됨에 따라 자연히 엡윗청년회도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조선엡윗청년연합회를 형성하여 회장에 유형기, 총무에 김기연(金基演)이 선출되었다.

엡윗청년회는 전도가 그 목적 중 하나였지만 전도 외에도 사회봉사, 특히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를 위해 여러 가지 애국활동을 전개하여 불신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면려청년회는 1881년 미국 오레곤(Oregon)주 포틀랜드(Portland) 시의 회중교회 목사였던 클락(F.E.Clark)이 창설한 초교파 청년운동체다. 그러나 1889년 감리교회가 엡윗청년회를 따로 조직해 이 단체에서 나가자, 이어 다른 교파들도 자체 청년회를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면려청년회에는 장로교회만이 남아 있게 되어 결국 장로교회 청년단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한국에서 이 운동 역시 선교사들에 의해 1916년경 서울 새문안교회, 승동교회, 평북 선천의 북교회 등에 면려회(勉勵會)란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정식으로 출범하지는 못하다, 3·1 독립운동이 있은 후에 앤더슨(W.J.Anderson) 선교사가 경북 안동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의 신앙지도, 사상 선도를 목적하고 정식으로 창설하였다. 처음에는 전도사업, 성경연구, 교회봉사 등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그쳤으나 차차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회가 펼치고 있던 금주·금연운동, 문맹퇴치운동, 농촌 사업 등의 사회계몽 운동으로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해 갔다.

1921년 6월 안동 지방에서 면려회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25개의 지회에서 600명의 회원이 회집되었다. 1921년 장로회 총회는 안동 지역의 면려회 운동이 많은 성과가 있음을 보고 각 교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이를 결의하였다. 선교부에서도 이 일을 적극 후원하기로 하고 앤더슨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두고 전국으로 다니며 지회 설치를 격려하기로 결정했다. 1923년 전국에 모두 200개 이상의 지회가 설립되어 전국연합회 결성의 필요를 느껴 이듬해 12월에 서울 피어선성경학교에서 기독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창립총회 및 제1회 면려회 전선(全鮮)대회를 개최하여 회장에 박현식(朴顯植), 총무에 앤더슨을 선출하였다. 또한 기관지로 「진생」(眞生)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1933년에는 청년운동의 권위자 이대위(李大偉)를 총무로 선출하면서 활동을 크게 확장하여 1934년에 이르러서는 지회가 1,000개가 넘었고, 회원이 3만 명이 넘는 장족의 발전을 하면서 전도와 봉사활동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십자가 사랑은 가장 좋은 양념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무엇을 먹을까 고민 하던 중 불판(BBQ Grill)에 무엇을 좀 구워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포기하려 하던 차에 바다에서 직접 잡아 온 생선이 냉동실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굽기에는 알맞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구워먹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큰지라 얼어 있던 생선을 굽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낮은 온도에 녹으며 구워지고 있던 생선에서 냄새가 많이 났다. 그 냄새는 말 그대로 생선 냄새였다. 이대로 놓아두면 가족들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바로 몇 분 전, 맛이 있을 것을 장담한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자꾸 메아리쳐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코에 들어오고 있는 현실의 냄새는 아직도 시골 시장에서 쉽게 맡을 수 있는 것이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 냉장고에 있던 레몬을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가지고 나왔고, 양념통에 있던 후추 가루와 소금, 그리고 비린 냄새를 없앨 생각으로 파(Green onion)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가족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동안 레몬을 있는 힘을 다하여 짜내고, 후춧가루와 소금, 그리고 익으면 걷어버릴 생각으로 손으로 파를 뜯어 익어가는 생선 위에 이름표를 달듯 올려놓았다. 한마디로 응급처치를 한 셈이다.

바짝 구워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 냉동실에서 곧장 나온 관계로 곱게 구워지지 않았다. 여기저기 살이 뜯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부서지는 살을 모아가며 레몬과 소금, 그리고 후추와 파로 나의 체면을 살리려 애를 썼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들 그릇위에 구운 생선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길게 느껴진 침묵 후, 가족들 얼굴이 행복해지면서 너무나 맛있다고 말해주었다. 나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도 조금 먹어본 순간 본래 맛있는 생선에 레몬의 시큼함, 소금의 짭짤함, 후추의 독특함, 그리고 파의 신선함이 그 맛을 말도 못할 정도로 높여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때 "나도 생선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의 본래 모습은 비린 냄새를 내던 생선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양념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의 은혜로 소금과 레몬을 뿌리셔서 비린 냄새를 제거함과 동시에 맛나게 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썩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피가 나에게까지 뿌려지게 되었고, 사랑의 향이 나에게 임하여서 더 이상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내고 또 다른 곳에 소금의 역할로 맛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5:13)라고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짠 맛을 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소금의 맛을 내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의 맛을 내야 한다. 어둡고 맛없는 세상에서 살맛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날 무엇을 뿌려 이렇게 맛을 냈냐고 자꾸 물어보는 가족에게 "사랑"을 뿌렸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 "십자가 사랑" 으로 맛을 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좋은 재료요 양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구약에서 길을 찾다

Finding a way through the Old Testament

권혁승 교수 초청 구약 성경 세미나



강사소개 **권혁승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전 부총장)
엔게디선교회 지도목사
수정성결교회 협동목사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전)회장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영문과(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Ph.D)

시간 및 장소*

10/22 (Sat) 10:00am - 5:00pm

at UBM Church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대상* 신학생, 목회 후보생

문의* 714-634-8360 / ubmchurch.com

신학생과 목회후보생 장학후원을 위한 공모전

세미나를 참석하여 강의를 들으신 후,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권혁승교수가 직접 확인,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 시상을 하며, 에세이 제출기간은 10월 22일(토) - 11월 5일(토) 입니다.

대상 (1명) : 승용차 (USED)
최우수상 (1명) : 장학금 $1,000
우수상 (2명) : 장학금 $500
특별상 (1명) : 노아의 방주 창조박물관 여행상품권 ($1,000 상당)
금상 (1명) : 아이패드 Air2
은상 (1명) : 톰 라이트 에브리원 주석세트 ($200 상당)
동상 (5명) : Gift Card ($20 상당)

주 최 : UBM UNITED BREAKTHROUGH MINISTRIES

후 원 : 기독일보 / Bliss 여행사



김선규 신임 총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예장 합동 신 · 구임원들이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조들의 신학·신앙 계승할 것"

예장 합동 김선규 신임 총회장 선출…통합측 채영남 직전총회장 참석해 축사

예장 합동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4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제101회 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김선규 목사가 취임했다.

김 목사는 "순교의 신앙 위에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기억하며, 부족한 종에게 귀한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며 "무엇보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잘 계승해 갈 것"이라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김 신임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단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를 이루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단을 바로 세워나가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전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한 회기 동안, 함께 총회를 섬기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제101회 총회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 가실 것이다. 그 가운데 교단이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그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장 통합 직전총회장인 채영남 목사가 축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채 목사는 "예장 합동과 통합은 이웃사촌이자 형제 사이"라며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것 같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김선규 신임 총회장님께서 교단을 잘 이끌어 달라"고 전했다.

앞서 설교한 이성택 목사(증경총회장)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들고 갔던 돌맹이처럼, 김선규 신임 총회장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되어 달라"며 "또한 생명을 걸고 교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장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교단이 지켜온 길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권면했다.

이 밖에 서현수 목사(서기)가 예배 사회를 맡았고, 전계헌 목사(부총회장)가 축도했다.

아울러 김찬곤 목사(GMS 이사장)와 김영남 목사(기독신문 이사장) 등 총회 산하 기관장들과 신임 상비부장들이 인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폐회기도는 양성수 장로(회계)가 했다.

김진영 기자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두수 회계사, 서헌제 박사, 박종구 목사, 최종천 목사, 문병호 교수.

"종교인 과세, 구체적 준비 없으면 혼란초래"

분당중앙교회…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 위해 논의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대처 방안의 모색과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는 9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1층 영산그레이스홀에서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주제로 제4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당초 주최측은 참석자 2백여 명 정도를 예상했으나 4백 명 이상이 몰려 보조의자를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이날 컨퍼런스는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박종구 목사(월간 목회 발행인)의 사회로 최종천 목사가 총주제발표를 했고, 문병호 교수(총신대)와 서헌제 박사(한국교회법학회장), 김두수 회계사가 소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이어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분당중앙교회 재정운영 관리의 실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 제언'을 제목으로 발표한 최종천 목사는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적을 넘어서는 실형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주기에 유용한 방법"이라며 "교회는 재정이 교회 파괴적 요소로 비화될 때 단호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던 교회에서 세금을 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1년 후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마 적응하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다. 그 동안은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는 당국과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분명한 항목을 정해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계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무엇보다 합법의 범위를 정하고 제한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성장과 부흥을 위해 힘을 다할 때가 아니라, 흠결 없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약점 없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목회적 힘을 나누어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발표한 문병호 교수는 "정확한 세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성직자를 근로자와 같이 여기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보장의 문제 등이 대두될 것"이라며 "지금은 성직자 납세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구현하고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분당중앙교회 정관 및 각종 법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서 교수는 분당중앙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핀 뒤 "일부 보완할 점이 있으나 한국교회가 이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면 더 이상 돈 문제로 인해 손가락질 당할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종교인 과제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제목으로 발제한 김두수 회계사는 "2018년부터 모든 종교단체의 성직자들은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에 해당하는 유상보수에 대해 소득구간별 공제를 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종교단체마다 전문 실무자를 두어 구체적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행 초기,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컨퍼런스를 열어 한국교회에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김진영 기자

"한국 장애인 선교 활성화에 최선 다할 것"

한장선총연합회…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30년사 발간회

장애인 선교와 복지의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영)가 9월 29일 서울 종로 소재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장애인 선교 및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한 발자취와 더불어 장애인 선교 발전방향 등을 한 권에 담은 '한국의 장애인 선교' 발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형영 회장(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환영사와 이병돈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축사,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공로패 수여는 장애인선교와 복지 발전을 위하여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30년 발전에 공헌한 단체에 수여되었다.

정권 목사(무지개선교회), 정형석 목사(밀알복지재단), 김양원 목사(신망애교회), 여광조 목사(대전밀알선교단), 김광열(한마음복지문화비전센터), 김경원 목사(광주농아복지재활센터), 박영식 목사(임마누엘교회), 박서근 목사(미문복지비전센터), 남재중 목사(부산밀알선교단)가 공로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30주년을 맞아 양동춘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초대회장)가 설교했다.

또한 손봉호 교수(기아대책 이사장)의 강의, 이진완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의 실무자 교육,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지도자 교육 순으로 각각 진행됐다.

윤형영 회장은 '한국의 장애인선교' 발간을 통해 "장애인선교를 감당하려고 몸부림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의 발걸음을 후배들이 읽고, 이를 토대로 향후에 수행되는 한국의 장애인선교를 저희들이 해왔던 것보다 더 힘차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하여 1986년 설립되었다.

그 후 199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된 장애인 전문 선교단체연합회이다.

홍은혜 기자





피터 윌슨 목사. ⓒ처치리더스닷컴

"하나님과 지역교회 계속 섬길터"

탈진 대형교회 사임 목사…비영리 단체에서 새 출발

최근 탈진 때문에 사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던 크로스포인트교회 피트 윌슨 전 담임목사가 에이 그룹(A Group)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윌슨 목사는 아내 브랜디 사모와 함께 크로스포인트교회를 설립한 후 14년 이상 교회를 헌신적으로 이끌며 지금과 같은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지난달 교회 공식 웹사이트에 "쉼 없는 사역으로 탈진했다. 쉬고 싶다" 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갑작스럽게 사임해 교계의 이목을 끌었다.

처치리더스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윌슨 목사가 일을 시작하게 된 에이 그룹은 마케팅 및 기술 관련 업체로 교회 봉사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윌슨 목사는 이 단체의 임원을 맡았다.

윌슨 목사는 에이 그룹의 웹사이트에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이번 결정이 다소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빠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내가 위험한 시기를 이끌어 왔으며, 하나님께서 크로스포인트교회로 부르신 사명에서 나를 놓아주셨고 무엇인가가 달라진 때임을 자연스럽게 느낀다"고 했다.

윌슨 목사는 에이 그룹에 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쉬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보냈다.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다음을 놓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크로스포인트교회에서 가졌던 '위험한 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적어놓기도 했다.

에이 그룹에서 윌슨 목사는 현 부회장인 다이애나 마쉬와 함께 회장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 단체 설립자 윌슨의 친구이기도 한 마우릴리오 아모림 CEO는 윌슨이 자신의 팀에 합류한 데 대해 큰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아모림 CEO는 "피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사역에 대한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깊은 지식과 지혜로 교인들을 이끌었으며,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증거했다.

윌슨 목사는 "에이 그룹과 더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내게 필요한 개인적인 쉼과 균형을 발견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재능과 열정으로 하나님과 지역교회를 계속 섬겨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천국가기전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



빌리 그래함 목사
ⓒ빌리그래함전도협회

복음주의 설교자 빌리 그래함 목사는 지난 9월 26일 빌리그래함전도협회 질의응답란을 통해 '천국에 가기 전까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어온 질문자에게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려는 이들은 '영적인 성숙'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질문자는 "나는 고등학생으로 이번 여름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여름캠프에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래함 목사는 "새 신자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인 신생아와 같다. 아기가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란 음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기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아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것처럼 새 신자는 우리를 돕고 보호할 다른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래함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 새 신자는 성경 공부를 그들의 삶에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소피아 기자

"왜, IS 테러리스트가 될까?"

지난 9월 17일 뉴욕과 뉴저지에 31명의 부상자를 낸 폭탄테러를 자행한 아흐메드 라하미는 어떻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 등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 파키스탄에서 7살까지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미국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까지 다닌 28세의 그가 테러범이 된 것은 극단적 이슬람 이데올로기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라하미처럼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어려서 미국에 와서 자란 이슬람 가정의 젊은이들은 'Bridge generation'으로 불리는 데 이들은 무슬림과 미국인이 되는 것 사이에 고민하는 자들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슬림 청소년과 청년들은 '미국에서 이슬람은 뭔가? 무슬림이 아닌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도 되나? 스스로 고립하는 것이 이슬람 신앙을 강화시키는 것인가?' 등을 질문하며 고민이 많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저널은 소개했다.

그 가운데 기성 세대가 다니는 모스크의 이슬람 성직자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극단적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접하게 되면서 이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라하미도 미국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영어를 사용하는 서구권 청년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미친 안와르 알와라키의 메시지에 역시 영향을 받았다.

예맨에 은닉했다가 미국 무인비행기 공격으로 사망한 알와라키는 미국이 중동에 한 것을 볼 때 무슬림과 미국인이 동시에 될 수 없다는 급진적 정치선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샌 버나르디노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14명을 살해한 수에드 파룩, 플로리다 올랜드 나이트클럽에서 49명을 죽인 오마르 마틴, 보스톤 마라톤 테러를 자행한 차나에프 형제들 모두 이 알와라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샌 버나르디노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14명을 살해한 수에드 파룩, 플로리다 올랜드 나이트클럽에서 49명을 죽인 오마르 마틴, 보스톤 마라톤 테러를 자행한 차나에프 형제들 모두 이 알와라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하미는 이후 2차례 파키스탄을 방문하면서 극단적 이슬람 이데올로기에 물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9:00
3부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영상예배) 9:30am,11:30am
수요코람데오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5 S. Santa Fe Ave.,LA, CA 900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과거 총격이 발생한 이집트 동정녀마리아교회(Virgin Mary Church) 근처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 ⓒ 보도화면 캡쳐

"박해 피해 달아나는 콥틱 기독교인들"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 1천 명…박해 피해 헝가리로

이집트 콥틱 기독교인 1천 명이 증가하는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에서 헝가리로 비밀리에 이동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헝가리 언론, 심지어 헝가리 현지에 있는 일부 콥틱 지도자들은 이들이 도착했다는 어떤 명백한 증거도 얻지 못한 상태다.

헝가리는 국경을 폐쇄하고, 수 만명의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 이민자이거나 중동 지역의 난민이다. 헝가리는 "국내에 많은 무슬림 인구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졸탄 코박스 정부 대변인은 "약 1천명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서 헝가리로 건너왔고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공개된 방식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가리안헬싱키위원회 공동의장인 마르타 파르다비는 아이리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은 매우 미스테리하다. 아무도 새롭게 건너온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인정에 따른 행동일 경우, 매우 조용해야 한다. 1천명의 콥틱 기독교인들은 헝가리에 있는 콥틱 지도자에게도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었다.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특별 정부를 설립했다. 이 정부는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 난민들을 위한 것으로 관계자는 중동의 기독교인들을 돕고 유럽 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를 감시한다.

코박스 대변인은 아이리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종류의 도덕적 사명을 믿는다. 이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유럽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등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감각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UN이 위험에 처한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비기독교인의 경우, 현장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이탈리아 무신론자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방송한 앵커 비판

무신론자와 세속주의자들이 유명한 기독교인 뉴스 앵커가 생방송에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나온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탈리아 TG1의 마리나 날레소(44) 앵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생방송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TG1(TeleGionale1)은 이탈리아 국영방송인 Rai 1의 주요 뉴스채널이다.

십자가 목걸이 외에도 그녀는 종종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들어간 메달 등을 하고 TV에 등장했다. 날레소는 베니스 출신이지만 최근에는 로마에 자리를 잡았다.

근본주의 정치인 실비오 비알레는 "TG1은 대중을 상대로 한 세속적인 TV 방송국이지 TG 바티칸이 아니"라면서 "그녀는 생방송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리나 날레소. ⓒ마리나 날레소 페이스북

"어떻게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나?"

남침례회 신학대 엘리엇 클락 교수 칼럼 통해 언급

남침례회 신학대학교 엘리엇 클락 교수는 최근 더가스펠코얼리션에 소개한 칼럼에서 '축복의 말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로 축복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언급했다.

클락 교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복이 되고 싶어한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모를 때이다. 심지어 우리가 '복'에 대해 말하는 방식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쉽게 당혹감에 빠지고 이를 성취하거나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빌고, 아이들과 이웃들을 위해 복을 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예화는 아론의 축복 기도일 것이다"고 했다.

또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 6:24~26)"라는 성경의 예를 들었다.

그는 또 매일 같이 축도해야 한다면서 "축도는 일주일 동안 기독교인들의 대화에 넘쳐야 한다. 축도는 일주일 동안 기독교인들의 대화에 넘쳐야 한다. 왜냐하면 축도에 날선 검과 같은 적용의 힘과 격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으로 돕고 세워주시길 기도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말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결국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클락 교수는 "단순히 복을 빌어주거나 또는 복이 되려고 하는 대신 문자를 통해, 예배이후 대화를 통해, 중요한 삶의 순간들을 통해, 편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내가' 또는 '너는 반드시'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사용할 때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일 조금씩 회복될 것이고, 복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을 재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현지교회가 불타면서 오픈도어가 제공한 성경도 탄 흔적.

"세계 박해순위 18위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현실"

극단주의 무슬림 · 근본주의 정교회의…개신교 박해 심해질 것

에티오피아는 201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67점을 획득, 박해 순위 18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박해 지수 61점에 22위였다. 에티오피아 기독교인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 이전보다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주 요소는 이슬람 극단주의(Islamic extremism)와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이며, 부수적인 요인으로 반 기독교적 민족 정서(Tribal antagonism)와 독재 정치(Secular intolerance) 그리고 세속주의적 배척(Secular intolerance) 등이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Islamic extremism): 에티오피아 인구는 기독교인 63%와 무슬림 34%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르 주(Afar)와 소말리 주(Somali) 그리고 오로미아(Oromia) 등 지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이다. 지역적, 나아가 국가적으로 이슬람 과격주의(또는 이슬람의 정치화)가 성행함에 따라 각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박을 받게 되어 극도로 취약해져 있다.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에티오피아 동부와 중남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며 그들이 공공재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는 한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폭력의 대상이 되는데, 이슬람 과격주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소말리아(Somalia)와 수단(Sudan)의 상황이 에티오피아에게 영향을 끼친다.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에티오피아 동방 정교회는 지난 수 년 간 정교회를 떠나 개신교 등 다른 교단에 가입하거나 정교회 내의 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방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로 에티오피아 동방 정교회 교인들은 종종 교회 내부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단체들에게 공격을 가한다. 또 정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타 교단의 규모를 축소시키고는 한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단의 확장을 제한시키는 법률을 통과 시키도록 정부에게 탄원하기도 한다. 실제로 종교등록 관련 법률에서 동방 정교회는 등록 대상에서 면제되어 있다.

*반 기독교적 민족 정서(Tribal antagonism): 1991년 이래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민족의 문화, 언어, 역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을 지배했다. 이로써 뿌리와 정체성을 되찾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개인 및 집단 가운데 기독교인에 대해 적대적 정서가 형성되었다. 1974년 이전에는 에티오피아 동방정교회가 국가를 대표하는 종교였다. 1974년에서 1991년 사이에는 공산주의 정부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17년 만에야 여러 민족 세력들에 의해 타도되었다. 1991년 공산주의 정부의 몰락 이후 체결된 에티오피아 과도기 헌장(Ethiopian Transitional Charter)은 각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되며 인정될 것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 정부에 의한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으로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민족들은 기독교에 대한 분개심을 품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많은 오로모인(Oromos)들이 토속 신앙 체계인 와케페다(Wakefeta)를 신봉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민족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민족 간 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앙갚음을 서슴치 않는다. 또한 소말리 주와 아파르 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와 민족이 깊게 연관되어 있어, 이슬람을 배교하는 것이 곧 민족을 등지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독재 정치(Dictatorial paranoia): 에티오피아의 독재 정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민 대표회의 대변인과 수상 등 정부 고위 관리들이 개신교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에티오피아 정부는 종교와 특히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종교가 다른 어떤 정치 선동 세력보다도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민중들을 소집하고 조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한다면 손쉽게 정권이 교체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개신교도, 특히 신흥 교회의 개신 교도들이 실상은 정권의 타도를 위한 해외 파견 요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로 정부는 에티오피아 동방 정교회의 지도자 상당수가 반정부 세력들의 지지자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종교 기관의 활동 참여 범위를 제한시키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에티오피아는 201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Index 2015)에서 180개국 중 142위로 발표되었으며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15년 보고서는 에티오피아에 대해 "자유롭지 않음"이라고 판정했다. 간단히 말해 정부는 본질적으로 권력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세속주의적 배척(Secular Intolerance): 앞서 말했듯이 에티오피아 동방 정교회는 1974년까지 국교였다. 1974년 공산주의 사상의 군사 정권이 수립되었고 사회에서 모든 종교를 일제히 몰아냈다. 그후 17년 간의 내전 끝에 1991년 공산주의 정권이 타도되었다. 반군 세력은 과도기 정부를 수립했고, 이어 1995년에 새로운 헌법이 체결되었다. 새 헌법은 제11조에 "국가와 종교는 서로 분리된다. 에티오피아에는 국교가 없다. 국가는 종교 사무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교 역시 국가 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국가의 비종교성을 명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헌법 변호사들은 세속주의 원칙이 에티오피아에서 과도하게 시행된 나머지 역으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본다. 종교적 목적의 방송 시설 설립 금지, 교육 기관에서의 종교 활동 금지 등은 예배의 자유, 개인의 종교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할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에티오피아(Ethiopia)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는 박해 유형은 다른 나라들과 사뭇다르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박해자들이 큰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이 잘드러나지 않는다.

우선,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과 이슬람교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종교는 각자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시도해 왔고, 그 과정에서 터키와 포르투갈, 이집트와 관련되어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둘째, 에티오피아에 있는 많은 부족이 기독교에 모두 호의적이지는 않다. 게다가 아파르(Afar)나 소말리(Somali) 등 몇몇 지역의 부족들은 이슬람교와 연계되어 있다. 셋째,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막기 위해 집권당이 모든 도로를 통제하고, 저항을 막기 위해 모든 종교단체 역시 통제하려 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종교, 협회 결성,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넷째, 에티오피안 정교회 기독교인은 내부에서 개신교도와 개혁주의 노선의 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2007년 센서스 조사에서는 정교회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43.5%, 개신교도 18.6%, 이슬람교도 33.9%로 약간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종교인구의 변화로 정교회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개신교도를 향해 더 큰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개신교도의 증가는 대부분 정교회 기독교인의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에티오피아에서 박해당하는 교회의 미래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새벽예배 월-금 5:30AM 토 6:3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셀기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an.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 새벽 헵시바 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믿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삼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 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9차 10차 **미남부 대륙횡단 13박14일**

▶10월 20일
▶11월 2일
$2,399 (항공포함 가격)

로스엔젤레스-바스토우-플렉스텝-세도나-투산-칼스베드-페코스-샌안토니오-휴스톤
뉴올리온스-몽고메리-아틀란타-차터누가-피젼포지-노아노크-워싱턴DC-뉴저지-뉴욕

캘리포니아 모하비사막 캘리코은광촌/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에어포트메사 오크크릭/칼스배드 국립공원/미항공우주국 NASA방문/
몽고메리 현대자동차공장 관람/올림픽 파크 CNN빌딩/스톤마운틴/신비의 폭포 루비폴/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클링맨스돔/루레이동굴/
세난도 국립공원/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링컨기념관/한국참전용사기념비/백악관, 제퍼슨기념관/자유여신상/엠파이어빌딩/센트럴파크

서두르세요~ 4자리 남았습니다

단/풍/특/선

같은 가격으로 동부 단풍과 캐나다 단풍을 즐기세요

미동부 캐나다 절정 단풍 6일

▶출발확정 10월 8일 (항공/숙박/입장료 포함) **$949**

① 한인여행사 최초 뉴헴프셔주의 화이트마운틴 - **단풍 곤돌라**, 미국 제 1의 단풍비경 〈캔카마구스 단풍로드〉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퀘벡**과 북미의 파리 **몬트리올**의 영원한 단풍의 노스탈지어를 꿈꾸다
③ 애디론덱, 주립공원과 협곡의 장관 !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오쉐이블케즘〉 단풍 힐링 트레킹

김태호 인솔자가 LA 부터 끝까지 모십니다.

Imagine your Korea
단풍절정 한국일주
$2,560 (항공포함) 10일
No팁! No옵션! No쇼핑! ▶10/20

▶ 부소산성 – 전주 한옥마을 – 두륜산 케이블카 탑승체험 –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 – 화개장터 관광 순천 갈대밭 – 금산 보리암 – 남해 독일마을 –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 외도 해금강 유람선 부산의 자갈치 시장 – 경주 불국사 – 대릉원 (천마총) 관광 및 첨성대 경유 영덕 해맞이 공원 – 삼척 환선굴 –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 강촌 레일바이크 체험 (4인승 탑승)

SOLD OUT 캐나다 단풍크루즈 9일 상품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픈기념 이벤트!
★응모기간: 10월14일 까지 추첨일: 1차8월 15일 2차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왕복항공권 8월 15일 1장, 9월 15일 1장 추첨했고 그 외 모든상품은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사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1차 당첨자 : 최은순 님 경품 - 한국 왕복 항공권
2차 당첨자 : 지현희 님 경품 - 한국 왕복 항공권
10/15 푸른투어 LA지사에서 경품추첨 합니다 많은 참관바랍니다

바다위의 리조트, 크루즈

특급 프린세스
미주 최대의 직영점을보유한 푸른투어만의 남미완전일주
페루/이과수/리오와 남미완전일주크루즈 23일 **$4,999** ▶2017년 1월 14일
[남미] 〈아말리아빙하〉크루즈와 이과수/리오데쟈네이로 20일 **$4,299** ▶2017년 1월 17일
특급 프린세스와 함께하는 남미일주 크루즈 17일 **$2,999** ▶2017년 1월 17일

동유럽핵심과 지중해크루즈 10일 **$2,999**
▶ 프라하 2박 / 로마 1박 / 초호화 크루즈 4박 / 바로셀로나 1박 (미서부 출발기준) ▶10/22
천년의고도 체코 프라하, 세계문화유적의중심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의 피렌체, 세계적인 영화제의 깐느, 그레이스켈리의 모나코, 아름다운 프렌치리비에라 남프랑스 프로방스의낭만 마르세유, 가우디의 바로셀로나
초호화 NORWEGIAN CRUISE EPIC호

크루즈 런칭 기념 PRINCESS CRUISE 특선
* BAJA MEXICO 5일 ▶11/27 $345
▶ 11/27 LOS ANGELES / SANTA BABARA / ENSENADA (CROWN PRINCESS)
* MEXICO RIVIERA CRUISE 8일 ▶11/12, 12/10 $699
▶ LOS ANGELES / PUERTO VALLARTA / MAZATLAN / CABO SAN LUCAS (RUBY PRINCESS)

멕시코 / 캐러비안 크루즈
바하멕시코 4일 ▶매주목, 금 $299부터
바하멕시코 5일 ▶매주 일, 월 $299부터
바하마 캐러비안 크루즈 5일/8일 ▶수시출발 $799
전세계 크루즈 ▶수시출발
▶ 파나마운하 / 남미(남극)크루즈 / 쿠바크루즈 / 하와이 남태평양 / 갈라파고스 / 알래스카 / 지중해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피요르드 / 그리스. 흑해

*크루즈 상품은 출발일마다 계약시점에 따라 요금 변동 있습니다.

Special 1 Joshua Tree
조슈아트리 캠핑 1박2일
가이드+캠핑전문 쉐프와 함께
$279
▶출발 :10/29
❶ 내인생의 첫번째 사막여행
❷ 별사진, 별보기, 삼겹살 바비큐, 캠프파이어
❸ 책에서 만나던 사막노을, 사막여우, 사막토끼를 만나보세요.

Special 2 Alaska
알래스카 오로라 기차여행 4박5일
$1,300 +항공 $1,200 [얼리버드 할인] +항공
10월 31일까지 예약시 얼리버드 $100할인 ▶출발 : 목요일 (12월 1일부터)
▶ 페어뱅스, 치나, 노스폴, 앵커리지, 커드우드
❶ 전세계 유일 '설국열차'타고 알래스카 횡단(약12시간)
❷ 호텔에서 편안하게 오로라 관찰
❸ 지구 최북단 설국에서 즐기는 노천온천
❹ 페어뱅스 역사박물관, 얼음호텔, 산타마을 등

Special 3 Las vegas Bellagio
한인 여행사 최초 / 추가요금 없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숙박
3일 그랜드캐년 / 라스베가스 ▶매주 화 출발 $299
4일 실속 4대 캐년 ▶매주 화 출발 $389
6일 실속 미서부 일주 ▶매주 화/토 출발 $599
7일 4대 캐년 + 요세미티 / 샌프시스코 ▶매주 화/토 출발 $689

미서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 3일
▶월요일 출발 $249
▶바스토우, 라스베가스, 세도나, 볼텍스, 몬테주마웰

그랜드서클 9대 캐년/세도나 7일
[출발확정] ▶10/27 $849
▶세도나, 그랜드캐년, 엔텔롭 캐년, 모뉴멘트밸리, 아치스캐년

서부 여행의 새로운 표준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월	그랜드 캐년/브라이스 캐년/자이언 캐년	
4대 캐년 벨라지오 숙박	4일	$389
4대 캐년 +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7일	$689
▶ 4일 – 매주 화 / 7일 매주, 화 토	3대 캐년 + 앤텔롭 캐년	
그랜드 캐년/라스 베가스 벨라지오 숙박	3일	$299
▶ 매주 화, 토		
요세미티/샌 프란시스코	4일	$389
▶ 매주 월, 목, 금, 토		
미서부 실속 여행 벨라지오 숙박	6일	$599
▶ 매주 화 토		

HOLLYWOOD
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불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캐나다
Wow~ 천섬크루즈 포함
리얼 캐나다를 보다!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매주 목 ~~$1,399~~ $1,099 신상품 런칭기념
토론토, 천섬,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퀘백(어퍼/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 의사당, 와이너리 (캐나다 아이스와인 시음까지) 방문

한국
No팁! No옵션! No쇼핑!
– 항공포함 / 전주, 해남, 외도, 경주, 영덕, 설악 등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 올림픽/강원 3일	▶수	$1,549

녹십자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녹십자HS 멀티비타민 무.료.증.정
퍼펙트 플러스 검진 $530 건강검진만 $37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밀검사, 갑상선기능,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퍼펙트 골드 검진 $600 건강검진만 $440
플러스 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미동부
$100 상당의 3대 옵션 포함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안개속의 숙녀호 탑승

명문대 탐방 5박 6일 ▶화,토 $1,09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존스홉킨스 / 콜롬비아
명문대 탐방 7박 8일 ▶수 $1,160
브라운 / 예일 / 하바드 / MIT / 프린스턴 / 유펜 / 콜롬비아 (나이아가라)
① 재학생 투어 총 3회 〈예일/하버드/유펜〉
② IVY 전문 가이드와 함께 캠퍼스 투어
③ 4명 이상 출발

"푸른투어는 동부여행도 직접 운영합니다"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 6일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 8일 (미동부/천섬 6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천섬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섬/보스턴/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올랜도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셜 등 에버글레이드 에어보트 ▶매주 화
올랜도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올랜도/마이애미 4일 $1,399 5일 $1,499

유럽
시랑과 낭만이 가득한 '중세 유럽으로의 시간여행'
크로아티아 완전일주 + 슬로베니아 / 보스니아 10일 발칸핵심
▶ 플리트비체 , 두브로부니크, 스플릿, 라스토케, 블레드호수, 포스토니아동굴, 피란, 모스타르, 메주고리예
* 푸른투어만의 안전하고 알찬 발칸핵심투어!!
▶특별출발 : 11월 5일 / 11월 25일 $2,999
푸른투어 인증 안전 ★★★★★ 편의 ★★★★★ 식사 ★★★★★ 테마 ★★★★★
❶ 중세유럽 건축물과 쪽빛 아드리아해의 찬란한 조화, '크로아티아'
❷ 같은 유럽 다른느낌, '보스니아
❸ 동유럽의 숨은 보석, ' 슬로베니아'
❹ 천상의 호수와 폭포, 플리트비체 호수

정통 서유럽 12일 ▶수시출발 $3,39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태리
정통 동유럽 10일 ▶수시출발 $2,999
뮌헨/프라하/크라카우/바엘라츠키/부다페스트/비엔나
동서유럽 20일 ▶수시출발 $5,1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미니 서유럽 8일 ▶수시출발 $2,899
런던/파리/인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비엔나 등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수시출발 $3,099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정 특식제공
– 해물파스타/송이구이/호이리게
스페인/포르투갈 11일 ▶수시출발 $3,199
리스본/세비야/코르도바/똘레도/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수시출발 $3,099
이스탄불/카피도키아/콘야/안탈야/파묵칼레/에페소/데살로니까/고린도/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수시출발 $2,799
밀라노/베니스/피사/피렌체/로마/폼페이

뿌라비다 코스타리카
활화산 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알칼리 온천욕
뽀아스화산/라빠스나비/폭포공원 관광 포함
4일 $850 +항공 5일 $925 +항공 6일 $1,090 +항공

하와이
호텔 인&아웃 픽업 서비스 포함
호놀룰루 시내관광, 오아후 섬 일주 관광
퀸카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톤 와이키키 4일 $929
하와이 허니문 3일 $1,349

멕시코
하얏트지바 로스카보스 숙박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4일 $659 +항공 5일 $800 +항공 6일 $1000 +항공
칸쿤 4일 $800 +항공 5일 $950 +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8)

마사다…자유를 향한 최후의 항전지(上)







제1차 유대전쟁의 마자막 장소로 예루살렘 다음가는 성지
천연암벽을 이용해 만든 헤롯대왕 시대의 천연 요새지

◈ 마사다(Masada)

마사다(Masada)는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으로 1번 국도를 타고 가다, 사해를 끼고 90번 도로를 타고 1시간 35분 정도 가는 64마일(104km) 지점에 위치한다. 이스라엘 남단 에일랏에서는 90번 도로를 타고 아라바 광야를 거쳐 136.7마일(220km), 2시간 23분이 걸리는 곳이다.

서쪽으로는 유대사막,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사해에서 약 8km 동쪽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절벽에 자리 잡은 고대의 왕궁이자 요새이다.

이스라엘의 국립공원 겸 유대인 성지로 제 1차 유대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소로, 예루살렘 다음가는 유대인의 성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73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당시 끝까지 로마군에 항거하던 유대인 저항군이 로마군의 공격에 패배가 임박하자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전원 자살한 것으로 유명하다.

열심당원을 주축으로 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끝까지 투쟁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두 자결한 광기와 패기가 아주 그냥 철철 흘러넘치는 장렬한 스토리의 무대이다. 이후 유대인들의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성지가 되었다.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이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 난공불락의 요새

히브리어 '요새' 라는 뜻의 어근에 걸맞게 마사다는 사해바다 서쪽의 유대광야의 절벽 위에 만들어진 난공불락의 성채이다.

절벽 높이 450m, 둘레 1,280m, 길이 남북 800m, 동서 300m나 되는 이 요새는 천연적인 암벽을 이용하여 만든 요새이다.

사해 바다를 기준으로 마사다를 거슬러 올라가려면 암벽길 같은 절벽을 약 450m나 올라가야한다. 그나마 좀 괜찮다 싶은 서쪽의 90m는 절벽인지라 사람이 오르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곳이다.

동서남북이 절벽에 가로 막혀 있고, 동쪽으로 오르는 길은 오직 몇 사람 정도만 오르도록 되어 있는 뱀길 같은 길이 있다.

◈ 마사다 건축

사람들이 이곳에 언제부터 살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이곳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요새가 만들어진 것은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요나단 마카비(142BCE) 시대와 알렉산더 얀네우스(103~76 BCE) 시대였다.

남쪽으로는 이두메 사람들, 그리고 동쪽으로는 나바테 사람들의 침략으로부터 방어 하기 위한 목적의 요새였다. 하지만 이 요새가 정말 요새답게 무장을 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관광객들이 보는 건물들이 축조된 것은 헤롯대왕(37~4BCE) 시대였다.

헤롯 대왕은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를 등에 업고 공격해오자 본인은 가족과 병력을 데리고 마사다 요새로 피신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뒤 로마로 건너가 원로원으로부터 유대 왕으로 인정받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등에 업고 전쟁에서 승리한다.

왕이 된 뒤, 헤롯 대왕은 마사다를 개조시키기 시작했다. 왕이 되었지만 정치적 위험도 있었기에 지리적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유리한 이곳을 요새화시킨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이 피난 갈 별장까지 만들었으며 로마의 영향을 받아 수로는 물론이고 목욕탕까지 만들었다. 바위를 파서 거대한 물 저장탱크를 만들고 수십 년을 먹을 곡물과 과일을 저장하는 걸로 모자라 만 명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까지 보관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마사다 요새는 헤롯 대왕이 죽고 로마의 속주가 되자 로마군이 쓰게 되었다.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마사다는 기원전 37년부터 31년 사이에 헤롯 대왕이 악정으로 인해, 자기에게 대항한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피난 요새이자 왕궁으로 세웠다고 한다.

수천 명이 몇 년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 분량의 식량을 쌓을 수 있는 식량창고도 만들었다.

마사다는 37 BCE 부터 31 BCE 사이에 7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마사다는 남북으로의 길이는 약 650m이고, 동서로의 폭은 약 300m가 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절벽위의 도시이다. 이 절벽의 주위로 약 1.3km가 되는 4m 높이의 성벽이 쌓여 있으니,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요새를 점령하려는 군사들의 사기를 꺾어 놓기에 충분한 요새이다. 게다가 이 요새로 올라가는 "뱀 길" (Snake Path)은 이 요새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뜨거운 광야의 태양과 후덥지근한 바람이 부는 유대 광야의 남단에 자리잡은, 마사다에서 지낸다는 것이 왕인 헤롯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늘을 만들어 주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마사다의 북쪽 끝자락 절벽에 궁전을 지었는데, 그 궁전은 3층으로 매우 호화로운 궁전이다.

이 궁전의 맨 위는 헤롯의 사무공간, 또는 생활공간이었다. 그리고 중간 층의 원형 건물은 헤롯이 즐기기 위한 위락의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맨 아래 궁전은 아름다운 프레스코로 장식된 헤롯 전용 공간으로 헤롯만을 위한 사우나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유대 지역에서는 얼마나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가가 곧,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 주는 것 같기도 하다.

◈ 헤롯과 마사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헤롯은 74BCE에 이두메(에돔)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두메 지역은 독립적인 왕국이 아니라, 유대 지방에 편입된 한 개의 지방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비록 이두메의 귀족 가문 출신이기는 하였지만, 유대 지방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헤롯의 나이 갓 25세 때에 갈릴리 지역의 행정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헤롯이 순수한 이방인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헤롯의 어머니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로 유대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 헤롯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순수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

유대 땅에서 165BCE 이래로 지속되던 하스모니안 왕가가 기울어져 갈 무렵인 63BCE부터 37BCE 사이에는 하스모니안 왕가가 유명무실했다.

반대로 로마가 유대 땅에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폼페이 장군이 바로 이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었다.

이 시기에 헤롯은 꾸준히 자신의 정치력을 키워 나갔고, 37BCE 에는 로마의 속주인 유대(Judea)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명되었다.

유대 지방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매우 큰 부담감을 가졌던 헤롯과 그 일가는 모두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갔다. 성전을 증축하고, 유대교를 권장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나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헤롯의 머리 속에서는 많았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하여 피난을 갈 피신처를 물색한 것이다.

그의 눈에는 마사다가 최적지였다. 이미 천혜의 요새로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두메 지역과 매우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조자들을 규합하기도 그 보다 좋은 곳이 없었다.

그래서 이 마사다를 자신의 만약을 대비한 피난처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이 마사다는 외적으로부터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헤롯에게는 아주 중요했다. 헤롯에게 치명적인 외적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였다. 이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 사랑 때문에 안토니오는 훗날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하게 된다.

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서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해야만 했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환영배너 스텐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탑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1.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 전도물티슈 ✦
✦ 볼펜 ✦
전도용물티슈 1,000set($380) 고급항균 물티슈! 1set에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샘플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 전도용 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설교시디앨범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환영배너 (스텐드 포함 $65) Free Shipping!!!


실버시티보험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101 Los Angeles, CA 90057


기독일보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2nd St. Oxford Ave. 3nd St.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 이장렬 칼럼

삭개오의 복음(4)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신대학원 신약학

정결함과 의로움을 뜻하는 그의 이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달려온 삭개오, 재활복구의 희망조차 일체 보이지 않던 그를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 대속의 서곡이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다(눅19:7). 그러나 예수님은 정결함과 의로움을 담은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 주신다: "삭개오야!"(19:5)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바로 앞둔 시점에 나타나는 삭개오 이야기에는 이 타락한 세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하시고, 죄인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된 그림자가 있다(19:11 참조).

누가는 다소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음을 무릅쓰고 "주(Lord)"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예수님이 삭개오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암시한다(19:8). 세리장은 맘몬을 하루 아침에 내팽개친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조롱 받아가며 토색한 것 무엇이든 네 배로 갚겠다는 그의 말에서 주저함이나 아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죽은 듯 살아 있고, 사는 듯 죽어 있던 그의 인생 가운데 맘몬은 더 이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며 위로의 근원도 아니다. 말하자면, 맘몬은 삭개오의 인생에서 철저히 비신화화 되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타락한 세리장이 이토록 변한 것일까? 어떤 가르침을 주셨기에 그와 같은 인생 대변혁이 가능했던 것일까? 도대체 삭개오의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 타락한 부자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일까?

한 번 재구성을 해 본다면, 아마 누가복음 내의 앞선 부분들로부터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에 걸친 예루살렘을 향한 장엄한 여정부분에서 주셨던 가르침 가운데서 삭개오에게 하셨을 법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중심적 가르침이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 말씀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셨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중 일부를 아마 나누셨을 것이다. 특히 청지기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은 꼭 주셨을 듯 같다. 아니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즉,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15장 1~2절에 나타나는 논쟁적 상황과는 달리,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 나누셨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저자 누가가 이 모두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Lord)로 고백하기에 앞서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일체 기록되어 있지 않다! 19장 7절은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생생히 묘사한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어 8절은 일체의 추가 언급 없이 바로 삭개오의 회개 장면을 그린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 내용을 생략함으로써 삭개오에 삶에 임한 변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현존 자체가 삭개오의 변화를 가져온 원동력임을 암시하는 듯 하다. 19:5과 19:9을 비교해서 보면 이에 대해 조금 더 확신이 생긴다.

누가복음 19:5 ……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기 전에 하셨던 5절의 말씀과 삭개오의 회개 직후에 하신 9절의 말씀은 서로 병행을 이룬다.

5절과 9절 모두 "오늘"이란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둘 다 삭개오의 "집"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차이가 있다면, 5절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9절은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5절과 9절을 이렇게 긴밀하게 비교하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바로 예수님의 방문이 삭개오의 구원을 가져 왔다는 사실이다. 8절에 "갑작스레" 나타난 삭개오 변화는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 예수님의 현존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 예수님은 구원의 인격화된 이름이다.

누가는 그가 쓴 복음서의 속편으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을 "예수의 영"으로 묘사한다.

사도행전 16: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는 16장 6절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한 후, 이어지는 7절에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심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누가는 승천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시고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심을 알려 준다. 누가에 따르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성령행전(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 이야기다. 성령의 현존은 예수님의 현존을 의미한다. 성령을 대면하는 이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모신 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현존이 가망 없어 보이던 삭개오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현존이 가망 없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케 하셨으며(고전 12:3 참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종종 우리가 소망 없다고 속단하고 정죄하는 그 영혼들—을 재활복구하고 계신다.

그렇다!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삭개오의 복음이다.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다!

• 헬스케어 칼럼(2)

의료협동조합은 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미국의 보험의 유래는 대공황의 발생과 관련이 깊다. 그 여파로 인해 발생된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자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민간고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생명보험회사와 비영리단체가 주도하여 병과 치료에 대한 보장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의료비용의 급속적인 증가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는 의료분야를 민간에 넘기게 되었다. 1973년 닉슨 행정부 시절에 연방의회가 건강관리 조직 법률(HMO Act of 1973)를 통과시키면서 미국에서의 민간보험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의료보험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2030년에는 GDP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의료보험에 지출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파산의 이유 중 62%가 의료비 지출 때문이라는 데이타는 우리의 생활과 의료비와의 긴밀한 관계를 말해준다.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협동조합은 자발적인 모임이며 사역단체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들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을 잘 지키자는 취지가 있다. 간혹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험회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새로 제정된 오바마케어는 병력에 대한 제한을 없앴으나 의료협동조합에는 그 제한이 있다. 혜택이 제한되어 있으며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은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임신 전에 가입해야 의료비 지원이 된다. 통상적으로 개인의 질병에 대한 자세한 증상과 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의료기록에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서로 믿고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간혹 상담만 했을 뿐 의료기록에는 없다고 하거나, 한국에 있는 의료기록이 미국에서는 알 수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발상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병력에 대한 시점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는 순간이 아니고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는 순간이다. 또한 오바마케어와 다른 점 중 하나는 가족이 각각 다른 플랜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려져 있는 데로 의료협동조합은 가족의 필요에 따라 다른 플랜을 들기 때문에 플랜을 변동할 수 있다. 플랜을 변경하는 것도 의료비 지원의 요청과 시기적인 시점이 중요하게 적용된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오바마케어와 크리스천 헬스케어의 플랜의 이름이 동일하다.



타나정 디렉터
크리스천헬스케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유래는 1968년 부산 복음 병원장 장기려 박사가 매월 60원을 받는 청십자 의료조합을 사회운동으로 시작한데 기인한다. 장기려 박사는 간을 크게 잘라내는 수술에 성공한 유능한 내과 의사로서도 유명했지만 의료조합의 중요성을 깨달아 사회운동을 시작한 의사로도 유명하다.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은 북유럽의 의료보험제도를 본 딴 것으로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모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국민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치료비의 40% 혜택으로 확대하며 '국민의료보험'의 의미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89년이다.

크리스천 헬스케어는 의료협동조합이므로 보험상품이 아니다.

보험보다는 보다 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으며 서로 짐을 나눠 지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큰 틀안에 있다. 크리스천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의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건강을 잘 관리하자는 의미가 있다.

보험의 카테고리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험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한국보험과 같이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보험에서 채 커버되지 못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보험처럼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도 지원이 된다.

시애틀에 사는 A 회원은 브론즈를 갖고 있으면서 한국보험을 같이 갖고 있었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 방문시에 발견되어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보험이 있으므로 80%를 커버받고 나머지는 크리스천 헬스케어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 커버받은 80%는 본인부담금으로 인정되어 A 회원은 수술, 입원비에 대한 다른 개인 부담금이 전혀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 한국보험과 중복되어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먼저 커버받은 액수를 본인의 개인 부담금으로 인정되어 나머지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한국병원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대부분의 병원에서 영문으로 된 의료내역서를 신청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미국생활에서는 너나할 것없이 의료비 부담이 크다. 특히 중산층들은 정부보조가 미미하여 그 부담이 더 크다. 가격도 비교해 보고 병원에 대해서도 귀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현대는 스마트 폰 시대이다. 누구나 스마트 폰을 터치만 하면 없는 정보가 없는 것이 요즘세상이다. 앉아서 누가 해 주는 서비스를 받던 시대가 아니고 스스로가 알아서 잘 스마트하게 살아야 하는 시대이다. 정보도 인터넷에 홍수처럼 많다. 그 안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것이 크리스천의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문의: 714-738-1234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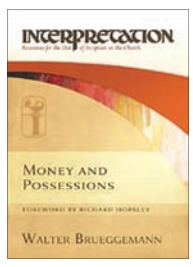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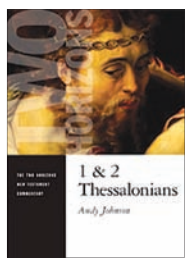
신간 추천

Money and Possessions
Brueggemann, Walter | Westminster



현대 성서주석으로 유명한 Interpretation 시리즈에, 주석 시리즈 말고(!) 주제별로 나오는 시리즈가 있다. 그 타이틀은 바로 Interpretation: Resources for the Use of Scripture in the Church이다. 순수하게 '성서는 돈과 소유에 대해 뭐라 말하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듣고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일독하길 권한다.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THNTC: 1 and 2 Thessalonians
Johnson, Andy | Eerdmans Publish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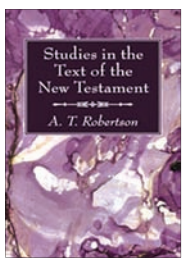
이 주석은 조엘 그린과 맥스 터너가 편집자로 있는 Two Horizon New Testament Commentary 시리즈의 일부이다. 줄여서 THNTC라고도 하는 이 시리즈는, 조직신학과 성서 연구 사이에 있는 틈을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석서처럼 한 권의 성서를 조각내어 주해하지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조직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BHGNT: 1Corinthians1-9
Baylor University Press



현재 미국 베일러대학교 출판사 기획으로 나오고 있는 〈히브리 성경본문 길잡이(BHHB: Baylor Handbook on the Hebrew Bible)〉이다. 이 책은 티모시 브루킹스(Brookins, Timothy A) 교수와 브루스 롱게넥커(Longenecker, Bruce W) 교수 공저로 〈고린도전서 1-9장〉과 〈고린도전서 10-16장〉이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고린도전서의 그리스어 원문에 대한 문법적, 구문론적 이해에 될 것이다.

Studies in the Text of the New Testment
Robertson, A. T. | Wipf & Stock



기본적으로 이 책은 그의 신약성서 본문 비평 개론서에서 다루지 못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신약 본문 비평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 될 것이다. 그렇다고 Robertson의 개론서를 읽지 않은 사람은 읽을 수 없느냐? 그건 아니다. 얇고 글자도 큰 책이지만, 설명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설명을 넣었다. 편하게 읽을 수 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저자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는 말씀으로 정의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잠 22:6)"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방법을 책에서 안내하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으로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이유는 제자훈련으로 평생 사역한 사람의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실패한 원인도 마찬가지이다. 교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교재도 잘못된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마땅히 행할 길은 본질이 실제화될 때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하신 두 요절에 본질이 다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선생이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본질이다." 이다.

저자는 '본질적 교재'는 '천국복음'이고, 이 천국복음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걸이에 회개, 세례, 죄 사함, 성령, 믿음, 의, 영생, 경건, 거룩, 마지막 심판까지 한 꾸러미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첫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차근차근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이다.



마땅히 행할 길
지광남
有하 | 340쪽

그러므로 가르치는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하고, 저자는 이를 위해선 이들이 이 책을 먼저 10회 이상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서는 복음에 대해 '빛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 새 생명으로 사는 세례' 등 주요 개념들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요한의 세례', '성경에 다른 복음이 있을까?', '죄를 못 박는 십자가와 구원을 주는 부활', '산 믿음과 죽은 믿음' 등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 있으며, 25장 전체를 통해 다른 '지식적 내용들' 대신 '복음'의 본질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선교사인 저자는 선교지 현지 사역자와 교회에서 제자삼기 사역 가운데 사용했던 교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맞춰 재구성했다. 그러나 주일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책의 사용법에 대해선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때는 '반복 학습'을 해야 한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 학습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식에 머물 뿐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목회자와 선교사, 사모를 위한 2016년 예수님의 기도학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 26:41)

10월 11일(화)~14일(금) 오전 9시~오후 5시

세상을 바꾸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역자에 달려 있습니다

강사


유용환 목사 (벤쿠버 목양교회 협동 목사)


성현경 목사 (가스펠휄로쉽교회 뉴저지/맨하턴)


송주한 목사 (남가주 해오름교회, 전 키르키즈스탄 선교사)


장현철 목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등록 : 100불 (숙식 포함) 부부 150불
문의 : 604-535-1800, 703-624-7112
admin.ictc@gmail.com

Imitating Christ Ministries
그리스도를 본 받는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 1J8 Canada

후원 : 기독일보

"영적 고고학, 영성의 깊은 샘"

오용이 있다 하여 용도를 폐기하지 않는다

◈ 기억상실증

이 책의 머리말은 매우 독특하다. 저자의 머리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말로 시작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교를 빼면 예수님의 오심을 시작으로 한 초대교회사를 시작점으로 볼 때,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사이에 기독교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증인들의 이야기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유진 피터슨은 본서의 가치를 "기억상실증에 걸린 한 세대 세계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역사의 아픔이 진행중인 나라이다. 일제 침탈과 그 후유증, 일본의 역사 왜곡, 외세에 의한 남북의 분단, 이 모든 것이 현재형이다. 더욱이 독립운동 열사들의 후손과 친일파 후손의 불편한 진실들은 우리 스스로 역사의 진정성에 자유롭지 못한 문제들이다.

한국의 근현대사, 한국의 교회사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그 역사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드라마에서 역사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역사의 진정성과 교훈을 주는 드라마는 없는 듯 하다. 이 시대는 역사 또한 재미와 오락거리의 대상이고, 현실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과 태도를 취했는가? 한국에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고도 부른다. 언약의 종교라는 말 속에는 '기억의 종교'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 영성과 경험신학의 필요성

이 책의 원제는 'Water from a Deep Well'이다. '깊은 샘의 생수'이다. 그런데 번역하면서 '영성의 깊은 샘'이라고 제목을 지었다.

차례를 보면, 11개의 역사적 특징들에 대해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현재 '영성'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영성이라 부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교리'나 '철학', '사조'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실제 교리와 철학은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지만, 현재 기독교가 연구해야 할 영성의 과제는 이러한 철학과 교리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영성의 깊은 샘
제럴드 싯처
IVP | 568쪽

목회나 선교와 관계된 실천신학을 넘어 심리학과 신경학 종교학(철학) 등이 연계된 영성의 실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므로, 이러한 역사적 특징과 철학의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1995년 당시 하버드대 하비 콕스 박사가 '세속의 영성'을 예견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견은 현실이 되어 있다. '세속의 영성'이란 첫째로 영성이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둘째로 모든 종교에서 영성의 연구와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며, 셋째로 특정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도 영성을 추구하고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예견은 지금 현실이 되어 있다.

영성에 대해 교회가 '루아흐', '프뉴마', '프쉬케' 등의 문자적 해석과 용례만 해석하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실제 세계, 즉 경험의 세계이다. 현대 의학을 두고 '경험과학'이라고 한다. 즉, 실제 몸에서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연구하여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치료적 방법에 대해 경험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영의 세계에 대한 연구 또한 경험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경험과 영적 경험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고 성과들을 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이 실학자들을 무시하던 것과 유사한 전철을, 기독교가 밟아서는 안 된다. 이론신학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신학의 틀을 넘어 경험신학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 역사 속의 보화들

이 책이 한국 개신교에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특히 3장 사막 성자들의 영성, 4장 수도원 운동의 영성, 5장 성상과 성인들의 영성, 7장 신비주의 영성 부분 등이다. 이러한 부분은 그동안 종교개혁적 입장을 취해 온 개신교에서 꺼렸던 부분이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명분과 정당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칼빈의 일반은총론의 입장과 직업소명설 등의 견해들을 본다면, 성경 외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나 계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리 인간의 활동과 노력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유용한 방법들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개혁주의 학자들의 글들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교적 신앙의 시대를 넘어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의 타락은 진지한 신앙인들에게 회의를 불러왔고, 그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교회를 떠나 교회가 없는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찾았다. 사막의 교부들은 바로 현실의 흐름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고 신앙적 현실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면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들이 사막을 찾았다기보다는 신앙적 현실을 직면하는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막으로 간 것이다. 그들이 힘든 삶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함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오늘날 심층심리학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깊은 마음과 영의 세계의 보화를 담고 있다.

5장의 성상과 성인들의 영성은 개신교에 속한 분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대목이라 생각된다. 동방정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성상과 성인'에 대해 개신교는 우상숭배로 여기지만, 본서를 통해 '상징'이 부족한 개신교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동방정교회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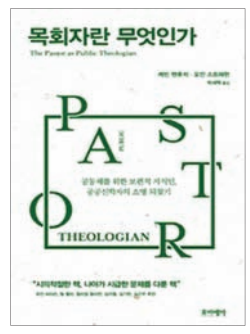
"오용이 있다 하여 용도를 폐기하지 않는다."

위 문장은 본서의 말미에서 강조하는 핵심이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타락', '구속'의 구속사적 큰 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타락하여 사막의 교부들이 새로운 대안을 세우자 그것이 다시 수도원으로 발전하면서, 수도원이 타락하여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타락의 공통점은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구원'에 대해 강조되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영성)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목회자란 무엇인가"

공공신학자로서 소명 잊지 말아야 해



목회자란 무엇인가
케빈 J. 밴후저, 오언 스트래헌
포이에마 | 359쪽

오늘날 교회, 기독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인 목회자.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과 비중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의 실태와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던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의 제목과 같은 질문을 목회자들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

질문에 대한 책의 대답은 원 제목과 같이(The Pastor as Public Theologian), 목회자란 공적 신학자라고 정의한다.

그 주장이 책 전체에 흐르는 큰 줄기이다.

우선 목회자는 '신학자'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책에서 정의하는 신학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근거해 하나님에 대해 잘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즉 신학자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고 말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주장으로 볼 때, 목회자가 신학자여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여진다. 삶 속에서 다른 소음들과 눈을 매혹하는 것들 앞에 방치된 우리에게, 공동체의 목자인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실재를 제시하는 일이며, 우리가 그의 이야기 속에 있는 자들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적'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목회자는 교회 안의, 내세만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세상에서 복음과 하나님나라를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지, 가치와 존엄이 도전받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입증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는 말씀과 현실 사이에 다리 놓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저자들은 목회자란 보편적 지식인이라고 말한다.

즉 교회와 교리에 갇혀 변방에서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고 해석해서 공중(public)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1장에서는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목회자의 역할(예언자, 제사장, 왕)에 대해 알아본다. 2장에서는 교부들과 앞서 있던 목회자들에 대해 다룬다. 3장과 4장은 각각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각 챕터 사이에는 12명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 다소 이론적인 책의 적용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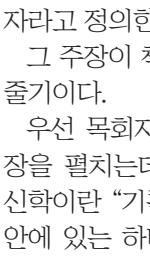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이 시대와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마 진리를 수호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품게 해 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 목회자들은 테크닉, 경영, 이벤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골방으로, 성경과 책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공부하라'는 말에, 이제는 목회자들이 (물론 모든 성도들도 포함되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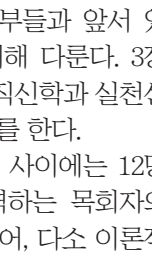
박예찬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016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BPPE 인가, ABHE 정회원 인준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October 6, 2016 Vol. 71



John Shin (left), pastor at Saddleback Church, interviewed Dave Ferguson (right) at the 'Thirty Network' gathering at Exponential West.

At Exponential Conference, Asian American Leaders Convene

BY RACHAEL LEE

For the first time, a separate gathering for Asian American leaders convened at the Exponential West Conference that began on October 3 at Mariners Church.

The gathering was a pre-conference hosted by the 'Thirty Network,' a group that launched in February this year that aims to resource and cultivate Asian American ministry leaders.

"We want to advance Asian American leaders for them to be able to influence the whole church world," said Kevin Nguyen, campus pastor of Saddleback Church Irvine South, and one of the leaders of the Thirty Network. "We want to provide access points like the space we had today to keep leaders inspired."

Bigger conferences like this one are helpful for leaders, but may lack contextualized information, said DJ Chuang, a strategy consultant who is also one of the leaders of the Thirty Network. He said it's important to "have an intimate space to have conversations like this among Asian Americans."

The session, which was split into three parts, featured brief talks with Daniel Im of LifeWay Christian Resources, president of Exponential Dave Ferguson, and DJ Chuang.

Daniel Im encouraged the pastors to persevere, especially when the realization of a vision seems far away.

"The time between the initiative and the realization of a dream is the time when God is going to shape you," Im said. "God is less concerned with our destination, than he is in the journey and in the day to day."

Dave Ferguson shared about his journey of becoming the president of the Exponential Conference, as well as his thoughts on current trends of ministry, among other topics. A generation ago, Ferguson said, many ministry leaders pursued building large congregations. Today, he said the trend is that more people are looking to "be a part of a reproducing or multiplying church," rather than simply a large one.

Ferguson added that he believes much of the leadership of churches and ministries in the future will become more diverse.

"The face of the future looks more like you," he said.

"Being Asian American is not about being a second-class citizen; it's not less, but it's actually more," said DJ Chuang, adding that Asian Americans have unique aspects to offer to the larger community. "The treasure that we have is that inherently, we have the experience of navigating multiple cultures."

Meanwhile, this is the second formal gathering of Asian American leaders hosted by the Thirty Network, following its first official gathering in February. The group plans to host two types of major gatherings regularly: 'access point' gatherings at major conferences such as Exponential, and 'signature gatherings' during which 30 ministry leaders in their 30s will gather for a 30-hour retreat, to prepare for the next 30 years of ministry.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to Focus on Envisioning the Future of the Asian American Church

BY RACHAEL LEE

The annual Asian American Ministry Conference will be taking place for the third time, this year under the theme, "Envision: Looking Toward the Future of the Asian American Church," on November 5 at Biola University.

While the first two conferences focused on the themes of mentorship and leadership respectively, this year, organizers hope to offer Asian American church leaders and members "more staying power, hope, and encouragement" for the cultural context of the churches that they are in, according to Dr. Benjamin Shin, the director of the Asian American Doctor of Ministry cohort at Biola's Talbot School of Theology, who is also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conference.

"I don't think this is necessarily bad, but what I see happening as a trend is that a lot of Asian Americans are leaving the Asian churches and going to primarily white churches, thinking that the white church would be better," said Shin. "And in some ways, it is better, in that the white church often has better systems and programs. But I think some people are thinking that the Asian church has nothing to offer."

"I see this conference as being a preview of the near future," Shin added. "If people stay in the Asian church and implement some of the things that we are going to offer; if we put these resources, talents, and abilities together, the future of the Asian American church will be dynamic."

The conference will feature Dr. Peter Cha, professor of church, culture, and society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as the main plenary speaker. Cha is also the co-author of 'Following Jesus without Dishonoring Your Parents: Asian American Discipleship,' and co-editor of 'Growing Healthy Asian American Churches.'

Workshops will explore various ministry topics, such as the need for partnerships in church planting, engaging in college ministry through the local church, global missions and reaching unreached people groups, children's and youth ministries, organizing church events, and Asian American leadership in multi-ethnic churches and ministries. This year's conference will also have a resource room with books specific to various ministries and cultural contexts. Other services such as financial advising and counseling will also be made available throughout the conference.

The early bird registration price for regular members is $25 and $20 for students until October 14. Thereafter, prices go up to $35 and $30 respectively. For more information, visit aamc.link.

Korean, Multi-Ethnic Leaders Prepare for Intercessory Prayer Gathering

BY RACHAEL LEE

With about one month left before the multi-ethnic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Korean, Korean American, and other ethnic leaders gather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September 29 to continue to prepare for the event, which is set to take place on October 23 from 5 to 8 PM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This year will be the second time Korean church leaders have organized this event. The first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drew a few thousand to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last November.

"This country is going through a spiritual shipwreck," said Rev. Paul G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nd the head organizer of the event. "But we can recover and save this ship. But that recovery is in the hands of God, and God works through those who pray."

About a dozen other ethnic leaders from white, African American, Latino American, and Middle Eastern communities were present at the preparation gathering, along with Korean American pastors Rev. Stephen Chong of Revival Church and Rev. Jeff Hyun of Holy Wave, the English ministry of Sa-Rang Community Church.

Organizers have also met with college and young adult ministries such as SOON Movement to encourage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to participate, and are planning to hold multiple preparation meetings in the coming weeks at different regions, including the Inland Empire, South Bay, Cerritos, Orange County, and Los Angeles.



Members of various ethnic communities gathered on September 29 to prepare and pray for the upcoming 'Heal Our Land' event.

'Beyond Belief': Millennial Artists Share Their Spiritual Journeys

BY RACHAEL LEE

Two years after its launch, NBC Asian America is set to start a series spotlighting the spiritual journeys of young Asian American artists.

The series, called 'Beyond Belief,' takes a look into the creative and spiritual spaces of five different artists from different artistic and spiritual backgrounds, including Christian DJ and producer Mark Redito; Sikh violinist Raaginder "Violinder"; spoken word artist and 'Good Muslim Bad Muslim' podcast host Tanzila "Taz" Ahmed; Buddhist slam poet G Yamazawa; Catholic singer and songwriter Jenyi Lee; and agnostic comedian Teresa Lee.

"Whether you're interested in culture, whether you're interested in religion, whether you're interested in Asian America, it all kind of comes together in this series," said Jason Chu, the producer and host of Beyond Belief. "We're in touch with all of those issues because they're pertinent to us."

Chu, who himself is a Christian hip hop artist, and Yohan Yoon, the director of the series, said that Beyond Belief sprung out of their own experiences with religion, as well as those of their peers.

"Beyond Belief is like a conversation that we've been having with ourselves, and with each other for months, for years. It's our journey as well," said Yoon.

Both Chu and Yoon, who are in their mid- to late-twenties, said they've experienced phases of disillusionment in institutionalized religion, and found that many around them were going through the same doubts. Though both identify as Christian, they realized that sometimes the way they were expected to live out or practice Christianity felt forced or inauthentic to them. And the same was experienced by many of the artists they've spoken with.

"Millennials aren't moving away from religion," said Chu. "They're moving towards authenticity."

Music and the arts have helped these young artists move towards a practice of religion that is genuine to them, Chu explained. For instance, though Raaginder grew up learning about and practicing Sikhism with his family, he said music was one of the catalysts that allowed him to deepen his faith.

"It made me understand the emotion of the scriptures, and what the gurus were trying to convey. It's easier to understand things when it's portrayed through music. That's how I connected to it," said Raaginder.

"We found that the arts really matter," explained Chu. "What we discovered was that a significant reason that many young people found their way back into religion is because their artistry provided them with an outlet to stay flexible with their spirituality when religion might have felt stifling to them."

Through stories like that of Raaginder's, Chu and Yoon hope to shed light on how young people today express and connect with their respective religions. And as Christians themselves, they also hope to challenge the Christian audience to think creatively about engaging with young people.

"There is a model of evangelism that's very conversion-based," Chu said. "It wasn't wrong for its time, but it's not necessarily helpful now. We're not saying, 'Hey, don't go out and pray for people. Don't go out and share Christianity with people.' But my challenge to myself is, in 2016, what does it mean to share Christianity? We shouldn't stop sharing, but what does sharing mean today?"

Yoon added that he hopes the series would break down negative stereotypes of each religion.

"We want to dispel the notion of radicalism that gets tied to religion. There are a lot of stereotypes, and there's a lot of hate, a lot of divide, a lot of walls," said Yoon. "So we want to create bridges. Bridges between art and religion, between religions,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artists, and show how all of these things intersect and come together."

Beyond Belief will come in a series of six- to eight-minute clips, and can be viewed online at NBCnews.com and the NBC Asian America Facebook page each Thursday starting October 6 until November 3.



Raaginder 'Violinder' (left) and Jason Chu (right) talk during one of the 'Beyond Belief' shooting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30 AM &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California Governor Signs Bill Approving Single-Stall Bathrooms to Be Designated as Gender Neutral

Governor Jerry Brown signed a bill on September 29, mandating all single-stall bathrooms in California to be used as gender neutral.

The legislation requires all business and government offices to post gender-neutral signs on the single-occupant toilets.

The bathrooms will now be subject to inspection by health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who will check the signs outside bathrooms to ascertain if they comply with the state's new gender-neutral regulation.

The bill, AB 1731, was sponsored by Assemblyman Phil Ting, who also called it "the nation's most inclusive restroom access law among states."

The bill will be implemented from March 1, 2017. It was endorsed and sponsored by Equality California, California NOW, and Transgender Law Center.

Cities which have already enacted similar laws as California's gender-neutral bathroom bill include Portland, Washington D.C., West Hollywood, Austin, Berkeley, Philadelphia, Seattle, and San Francisco.



California Governor Jerry Brown. (Photo: Charlie Kaijo / CC)

On September 27, the governor had signed a bill to limit state-funded travel to North Carolina and other states over 'bathroom laws' that require people to use restrooms in conformity with their birth genders.

About 19 states including Indian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ssachusetts, and New York have brought bills to their respective legislatures that sought to mandate bathroom use in line with biological sex.

Alabama Chief Justice Roy Moore Suspended for Disregarding Federal Same-Sex Marriage Ruling

BY RACHAEL LEE

Roy Moore, the chief justice of Alabama's Supreme Court, was suspended on September 30 for the rest of his term by the Court of the Judiciary, which ruled that he violated judicial ethics.

Moore issued an order in January, six months after the U.S. Supreme Court ruling which legalized same-sex marriage across the country, prohibiting probate judges in Alabama from issuing marriage licenses to same-sex couples. Soon after, the Alabama Judicial Inquiry Commission filed a complaint against Moore in May.

The Court of the Judiciary voted unanimously that he was guilty of failing to "perform the duties of his office impartially," to "comply with the law," and to "uphold the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mong other charges, according to the ruling.

Moore's suspension takes effect immediately, and will last until the rest of his term which was set to end in 2019. Given Moore's age (69), he will be unable to be re-elected into judicial office, as Alabama law prohibits individuals 70 or older to be elected or nominated as a judge.

Additionally, the ruling stated Moore will be responsible to pay for the proceedings, and he will be suspended without pay for the rest of his term.



Supporters of Roy Moore rallied at Alabama's state judicial building in 2003, when Moore was removed from office for refusing to remove a ten commandments statue. (Photo: 'HumbleGod' / Wikimedia / CC)

Liberty Counsel, which has been representing Moore, argued that the move was a "violation of the law" in that suspending Moore for the rest of his term was a "de facto removal from the bench" without actually undergoing the process of removal, which requires a unanimous 9-0 vote by members of the Court of the Judiciary.

"To suspend Chief Justice Moore for the rest of his term is the same as removal. The COJ lacked the unanimous votes to remove the Chief, so the majority instead chose to ignore the law and the rules," said Mat Staver, founder and chairman of Liberty Counsel, said in a statement.

Liberty Counsel said that it is filing an appeal with the Alabama Supreme Court.

Meanwhile, the Southern Poverty Law Center said the Court of the Judiciary "has done the citizens of Alabama a great service" in suspending Moore.

"Moore was elected to be a judge, not a preacher," the group stated.

Justice Lynn Stewart has been taking on the role of chief justice since Moore's suspension.

U.S. to Track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Bullying in Public Schools

BY CHRISTINE KIM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nounced new protocol earlier this summer in dealing with religious discrimination or bullying in public schools by requiring public schools to report instances of religious discrimination.

The Department's Office for Civil Rights created a new page on its website that outlines students' rights and provides other resources on religious discrimination as well as an updated complaint form.

Public schools across the country are now required to report cases of harassment or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to the Civil Rights Data Collection beginning the 2015-2016 school year. It clarifies that the Office of Civil Rights will investigate complaints if students are subjected to ethnic or ancestral slurs or are bullied based on outer appearance, including the way they dress or speak. Furthermore, the Department will provide resources to schools beginning in October to help combat the issue.

Catherine E. Lhamon, the Department of Education's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said in a statement that "students of all religions should feel safe, welcome and valued in our nation's schools."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schools and communities to stop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so that all students have an equal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chool no matter who they are, where they come from or which faith, if any, they subscribe to," she continued.

The Office of Civil Rights enforces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which prohibits federally funded programs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While the law does not explicitly address religious discrimination, the website clarifies that Title VI protects students of any religious background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their ancestral or ethnic characteristics or nationality.

New Bill Introduced in Congress Aims to Take Away Johnson Amendment Restrictions

A new bill that would allow pastors to voice their perspectives on politics was sponsored and introduced by House Majority Whip Steve Scalise (R-La) and U.S. Rep. Jody Hice (R-Ga) on September 28.

The legislation, Free Speech Fairness Act (HR 6195), would address the speech restrictions imposed by the Johnson Amendment.

"For decades now, the Johnson Amendment has limited the ability for a lot of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and nonprofits to express their views and to exercise their free speech rights and exercise the religious liberty that is one of the hallmarks of our Constitution," Scalise said.

The Johnson Amendment does not allow churches and non-profits to participate in any activity or speech which endorses or opposes a political candidate or any public policy.

"Millions of Americans will go to the polls Nov. 8 and vote. These Americans are a cross section of society; they are diverse, with many different opinions, political views, areas of interest, and sources of knowledge that inspire their choices," Family Research Council President Tony Perkins wrote in an opinion on The Daily Signal.

"Such a robust civil society is part of what makes our country great. This civil society and the organizations that compose it should be allowed to inform their followers with expertise that could help them choose elected officials," he continued.

The bill will permit churches and non-profits to make comments on political issues without fear of losing their tax-exempt status or subpoenas from IRS.

Pastors from around the country participated in the annual "Pulpit Freedom Sunday," on October 2, a date on which pastors have been speaking on political issues for years. Though the IRS never responded to their activity, many churches around the country have faced subpoenas for sermons with political content.

However, HR 6195 does not permit the churches and nonprofits to become instruments of political agenda but only allows them to speak about public policies and political candidate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la.org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가을맞이 특별SALE





36 Months Closed End Lease, $6,9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75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